

## ‘낯설고도 그리운’ 골목길

언젠가부터

넓고 큰 길에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좁고 불편하지만

오가는 길에 인사를 나누며

추억을 만들고

온정을 나누던

골목길의 기억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낯설고도 그리운’

그 골목, 옛정을 찾아가 볼까요.

### 시민이 발로 찾은 서울 골목길 명소 30선

발행일 | 2016년 1월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발행처 | 서울특별시 관광정책과

기획 | 관광체육국장 김의승(Kim, Eui Seung), 관광정책과장 이기완(Lee, ki wan),  
관광자원발굴팀장 김덕환(Kim Deok-hwan), 담당 진옥현(Jin, Ok hyun)

제작/편집 | 써스포, 상상밸리

표지 | 안재선

### 취재 및 사진 협조

김경민 성동제화협회 예상촌 우사단마을

이현진 이해지 정수지 조덕현 최진호 허혜정

- 서울 골목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스토리 홈페이지 [www.seoulstory.kr](http://www.seoulstory.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본 가이드북에서 소개한 내용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낯설고도, 그리운



시민이 발로 찾은  
서울 골목길 명소 30선



## 시민이 찾고, 테마로 다시 태어난 우리 동네 골목 이야기

연금술사와 금세공사들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프리하 '황금소로', 형량한 공장지대를 세련된 뉴욕의 대표 이미지로 탈바꿈시킨 영화 <대부>의 촬영지, 브루클린의 '덤보' 등 누구나 알만한 유명 관광지에서 조금만 시선을 옮기면 보석같은 스토리를 가진 골목들이 있습니다.

골목에 얹힌 추억 하나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과 가까우면서도 그동안 개발의 그림자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골목이 낡고 허름한 이미지를 벗고 역사와 문화의 스토리를 담은 박물관 이자 갤러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로운 문화공간을 갖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시민이 밟로 찾은 서울 골목길명소 30선'은 서울시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온라인 플랫폼 <서울스토리>에서 진행한 '골목길 재발견 시민 공모전' 수상작과 시민 스토리텔링단이 직접 발굴하여 소개했던 서울의 골목길 명소를 수록한 가이드북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미술문화 만들기의 시발점이자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먹자 골목

- 남대문 칼국수골목 / 8
- 종로3가 보쌈골목 / 12
- 동대문 생선구이골목 / 16
- 삼청동 팔판길 / 20
- 청진동 해장국골목 / 24
- 회기역 파전골목 / 28
- 서래마을 카페거리 / 32
- 건대 양꼬치골목 / 36
- 삼각지 대구탕골목 / 40
- 도봉산 두부골목 / 44

## 놀자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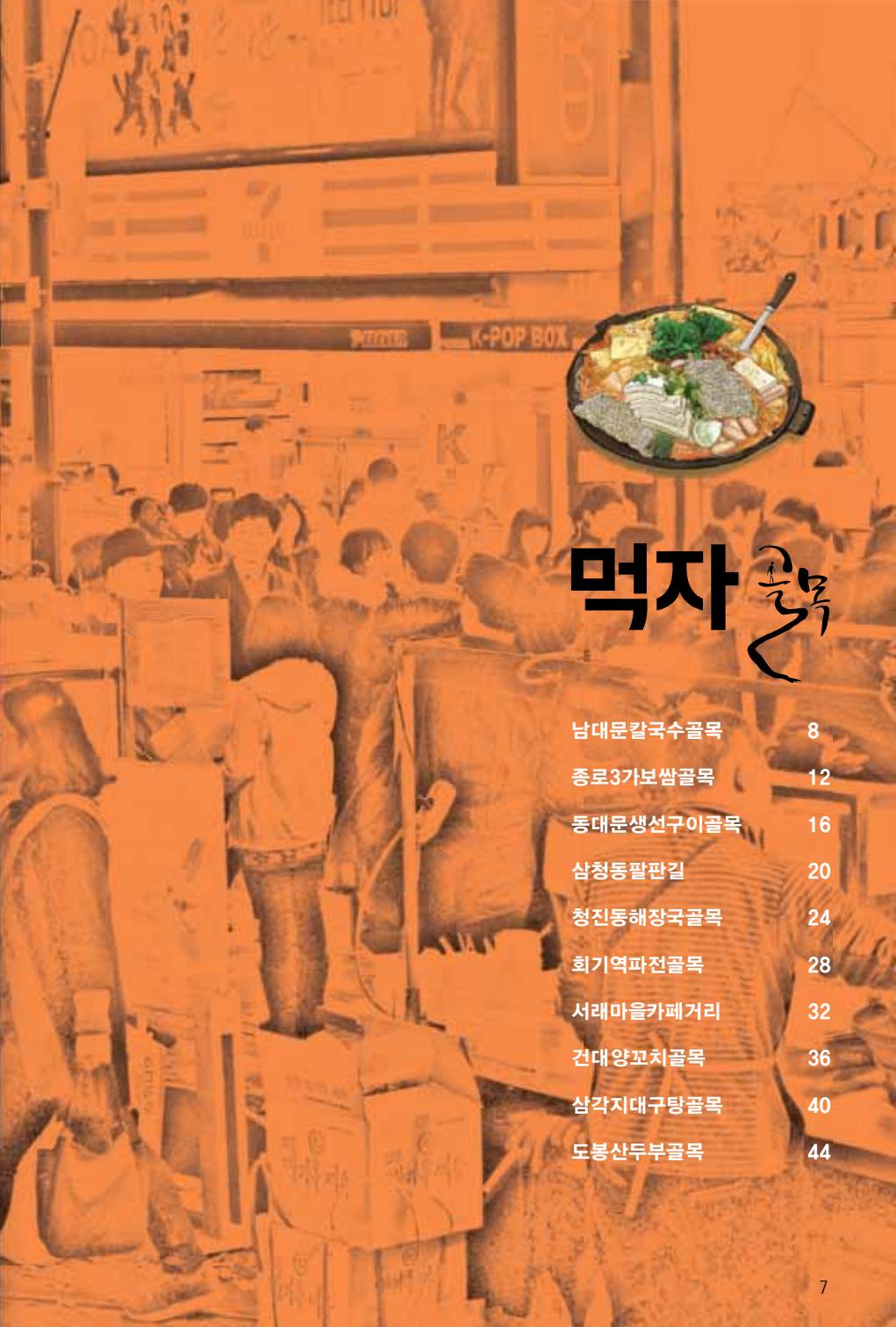
- 신촌 연세로 / 50
- 홍대 땡땡거리 / 54
- 종로 인사동거리 / 58
- 이태원 무사단길 / 62
- 종로 부암동길 / 66
- 신사동 가로수-세로수길 / 70
- 청담 한류스타의 거리 / 74
- 정동길 / 78
- 해방촌거리 / 82
- 광화동 중앙아시아거리 / 86



## 보자 골목

- 북촌한옥마을 / 92
- 종로 서촌마을 / 96
- 성수동 수제화거리 / 100
- 명동 재미로 / 104
- 강풀 만화거리 / 108
- 이화벽화마을 / 112
- 예지동 시계골목 / 116
- 문래동 샤밍골목 / 120
- 홍제동 개미마을 / 124
- 창신동 절벽골목 / 128





**마음까지 채워주는  
따뜻한 맛**

남대문  
**칼국수골목**

밖에서 먹는 음식 중 가장  
좋은 건 어떤 걸까.  
요리평론가가 극찬한 맛도  
센스 있는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호주머니  
가벼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싼 가격과 많은 양'을  
꼽는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히 갖춘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남대문 칼국수골목이다.



남대문 칼국수 골목은 한국전쟁때 모습이 갖춰졌다. 6.25 직후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잔반을 파는 가게가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서 칼국수를 함께 팔던 게 시작이다. 예전엔 지붕이 없어 비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먹어야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남대문과 명동을 대표하는 먹자골목이 됐다.

칼국수 골목이 위치한 남대문 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이고 점포수만 1만 개가 넘는다. 남대문 시장은 삶의 생동감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입구에서부터 삶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칼국수 골목은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 근처에 있다. 출구 오른편으로 50미터를 가다 왼쪽을 보면 수증기로 가득 찬 시장통이 나온다. 듣기만 해도 친숙해 보이는 이름의 칼국수집이 양쪽으로 길을 따라 좌악 이어져 있다. 칼국수, 보리밥, 냉면, 찰밥. 식사로도 간식으로도 안성맞춤인 메뉴이다.

이 곳 칼국수 면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반죽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렇게 만든 면을 멸치육수에 넣고 삶는다. 유부와 김가루, 깨가 함께 올라간다. 보리밥과 찰밥은 비빔밥 형태로 나온다. 테이블 바로 앞에 있는 큰 그릇에서 무채와 미나리, 콩나물, 상추를 순 가는 대로 집어 밥그릇에 수북하게 넣는다. 주문한 지 1분도 안 돼 식사가 뚝딱 나온다. 함께 나오는 된장국도 얼큰하다.

음식을 시키면 가장 놀라는 게 서비스다. 냉면을 시키면 칼국수를 주고, 칼국수를 시키면 냉면을 준다. 500원 정도 비싼 보리밥을 시키면 칼국수에 냉면까지 달려온다. 가격도 5~6000원 정도다. 양 또한 푸짐하다. 점심시간에 자리가 없는 이유가 있다.

서비스로 나오는 음식들도 마찬가지다. 수제 칼국수라 면발도 쫄깃하고, 유부도 가득 들어 있다. 좁은 골목에서 다닥다닥 붙어 앉아 먹다보면 사람냄새도 느껴진다.



서비스로 나오는 냉면

# 골목길 찾아가기



유부가 가득한 칼국수



보리밥과 쌀밥비빔밥이 있다.



회현역 5번 출구서 1분도 걸리지 않는다.



가격 또한 무척 착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

버스 : 104, 105, 604, 7011

남대문시장 namdaemunmarket.co.kr

문의 : 02-753-2805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송례문** | 국보 1호로 가장 오래된 서울의 목조 건물이다.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이라 남대문이라 불린다. 2008년 2월 방화에 의해 2층 문루가 소실됐으나 복구됐다.

**서울시립미술관** sema.seoul.go.kr | 정동길 옛 대법원 터에 위치한 한국 대표 미술관. 담장 없이 개방한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으로 예술적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곳이다.



영화 본 뒤 꿀꺽,  
퇴근 후 벌컥

## 종로3가 보쌈골목

종로3가 사거리는 예로부터 영화의 메카답게 인근 먹거리도 푸짐하게 들어차 있었다. 2시간 가까운 영화 관람에 기력을 다 소비한 연인들의 뱃속을 채워주는 보쌈골목이 있다. 푸짐한 살코기와 굴, 김치의 조합은 술안주로도 식사로도 그만이다.

보쌈골목이 위치한 수표로 20길



종로3가 보쌈골목은 주소상으로는 수표로 20길이다. 서울극장 옆쪽의 폭 3미터, 길이 150여 미터의 길이다. 그 중 보쌈집들은 100미터 구간에 빽빽하게 몰려 있다. 어둑어둑한 골목을 따라 몇 걸음 들어가다 보면 빨갛고 하얀 보쌈집 간판이 눈에 띈다. 골목 곳곳에는 돼지고기를 삶는 수증기가 뾰얗게 들어차 있다. 종로3가는 예전부터 극장 사거리로 유명했다. 단성사와 서울극장, 피카디리극장이 사거리에 서 있었다. 영화를 본 후 허기를 때우고 술 한잔 기울이려 이 종로3가 뒷골목으로 몰려들었다. 좋은 친구와 기울이는 소주와 보쌈의 조합은 금상첨화였다.



퇴근 시간이면  
직장인들이 목을  
죽이러 구름처럼  
몰린다.

보쌈골목의 주된 메뉴는 역시 보쌈, 그 중에서도 굴보쌈이다. 살코기와 김치, 무와 굴이 쟁반 하나에 꽉 차게 나온다. 신선한 굴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기, 매콤한 보쌈김치까지, 술안주로 이만한 것도 흔치 않다. 보쌈골목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푸짐한 양에 놀란다. 굴보쌈을 시키면 오징어볶음과 감자탕, 계란찜이 함께 나온다. 서비스 안주만 싹 비워도 배가 부르다. 일반 보쌈집은 김치를 추가할 경우 돈을 더 받는데 이 곳은 모두 서비스다.

맛과 서비스가 모두 좋다보니 오랜 세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저녁 무렵이면 항상 사람들로 바글거린다. 특히 퇴근한 넥타이 부대가 대부분이다. 방송도 많이 했다. 2012년 큰 화재가 났으나 이를 복구하며 더 깔끔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보쌈은 조선시대에서 온 음식이다. 양반집에서는 김장을 하느라 고생한 노비들을 위해 돼지 한 마리를 잡고 버무린 김치를 결들여 푸짐하게 배를 채웠다. 보쌈은 내국인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다.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맛있는 서울의 먹거리' 조사에서 당당히 8위를 차지했다.

# 골목길 찾아가기



시원한 김자탕도 무한 리필된다.



보쌈골목의 전경  
100m남짓한 거리에 대여섯 곳의 보쌈집이 모여 있다.

굴과 보쌈김치, 무와 땅콩, 살코기가 어우러진  
보쌈 한상 차림



## 빼놓지 말아야 할 주변 먹거리 골목

종로3가 인근에는 보쌈 골목 외에도 맛집 골목이 가득하다. 보쌈 골목에서 종로2가 쪽으로 나오면 포장마차 거리를 만난다. 청계천 방향으로 늘어서 있는 포장마차에는 없는 것 빼고는 웬만한 술안주가 다 있다. 탑골공원 뒤편으로는 낙원동 먹자골목이 있다. 맛집도 많지만 낙원동 골목의 강점은 저렴한 음식값이다.

서비스로 나오는 오징어볶음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1,3,5호선 종로3가역 14번 출구  
버스 : 101, 103, 143, 150, 160  
종로엔 다 있다 tour.jongno.go.kr  
문의 : 02-2148-1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종로 귀금속거리** | 한국 귀금속의 메카 종로에서도 가장 많은 귀금속매장이 모여 있는 곳. 시중보다 약 20~40% 저렴하게 귀금속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구 단성사 건물에도 귀금속 매장이 들어왔다.

**낙원동 악기상가** | 한국 악기의 메카. 1960년 세워진 건물로 당시 보기 드문 주상복합상가 건물로 주목을 받았다. 1층이 자동차 도로로 사용되는 특이한 형태. 1979년 인근 탑골공원의 정비 사업으로 피아노 상점들이 대거 입주하며 현재의 기반이 마련됐다.



**평화시장의 구수한  
30년지기**

**동대문  
생선구이골목**



'생선구이에 소주?' 란 앞집 주인의 말에 '좋지' 라며  
발길을 옮기는 원단 가게 사장. 평화시장에서 30년째 이런  
모습이 반복될 수 있는 건 한결같은 맛과 은근한 친절로  
정을 쌓아온 생선구이골목이 있기 때문이다.



골목 안쪽엔 닭한마리집들이 모여 있다. 멀건 국물에  
닭한마리를 풍덩, 칼국수와 함께 먹는다.



동대문 종합시장 먹거리장터입구. 호떡, 순대를 파는  
노점에서부터 생선구이골목, 닭한마리골목이 있다.

이 골목에 생선구이집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40여년 전  
이다. 튀김집을 하던 한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맛 좀 보라며  
생선을 몇 개 구워준 게 시초. 이후 튀김집이 종목을 바꿨고,  
생선구이집이 하나하나 늘어 골목이 형성됐다.

이 곳 사람들의 모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맞이하는 아주머니들과 연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생선을 뒤집고 있는 종업원들, 어느 곳을 길까  
고민하는 손님들과 그릇 가득한 쟁반을 산처럼 쌓고 가는  
배달원들이다. 골목을 들어서자마자 "삼촌, 자리 있어요",  
"생선구이 맛있어요, 먹고 가세요" 라며 호객이 이어진다.  
지나치면 거부감이 들 법 하지만, 가게 이모들은 손님들의  
그런 심리마저 훠뚫고 있듯 은근히 옷깃을 잡는다.

어떤 집을 길까 고민하지만 이 곳을 좀 안다 하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도 괜찮다'고 귀띔한다. 총 14군데의 생선구이  
집이 있는데 대부분 10년 이상 된 단골이 많다. 많은 식당이  
있음에도 그들이 계속 찾는 건 그만큼 맛과 서비스를 보증  
한다는 뜻. 손님으로 인근 평화시장 상인들이 제일 많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평화시장과 생선구이 골목을 잇는 '전태일  
다리' 쪽에서 인파가 몰려온다.

생선구이골목 풍경  
인근 평화시장 상인들부터  
관광객까지 손님들이 줄을 잇는다.

생선구이골목의 생선들은 모두 당일 아침에 들여온 신선한 것  
들이다. 삼치, 고등어 등을 국산 천일염으로 절이고 하루  
정도 냉장고에 숙성시킨다. 초벌구이 해놓은 생선을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연탄불에 굽는다. 능숙한 솜씨 덕에 아무리  
바빠도 5분이면 식사를 할 수 있다.

메뉴 구성이나 가격, 반찬 등은 대부분의 집이 대동소이하다.  
고등어, 삼치, 이면수, 조기, 꽁치, 갈치가 주 메뉴이고 낙지  
볶음, 오징어볶음, 청국장, 된장찌개 등의 메뉴도 있다. 가격은  
7천원 전후. 반찬으로는 된장국, 김치, 콩나물무침, 열무김치,  
깻잎 등이 따라온다. 반찬들의 매콤새콤함은 생선 속살의  
담백함과 좋은 조화를 이룬다.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검색이나 입소문을 듣고 찾아올 정도로 유명하다.  
중국인들은 조기, 서양 사람은 바짝 익힌 생선을, 일본인들은  
심치를 주로 찾는다고 한다.



# 골목길 찾아가기



■ 삼치구이정식  
삼치 한 마리가 살만 밟아져 두 조각으로 나온다.



■ 이면수, 갈치, 고등어 등 여러 종류의 생선구이가 나온다.  
가격은 7천원 내외로 비슷하다.

고등어, 삼치 등의 생선을 초벌구이로 준비해 두었다가  
주문이 들어가는 즉시 연탄불에 굽는다.



## 생선과 닭고기의 훌륭한 조화

생선구이골목 안쪽에는 닭한마리집 대여섯 곳이 모여 있다. 닭 한 마리를 멀건 국물에 넣고 끓이는 게 전부이지만 그 맛이 일품이라고. 생선구이집들의 후발주자지만 닭한마리를 위해 골목을 찾는 사람도 많다. 골목의 서쪽 끝에 있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1, 4호선 동대문역 9번출구  
버스 : 101, 105, 152, 201, 262, 370,  
720, 721  
종로구청 : [www.jongno.go.kr](http://www.jongno.go.kr)  
문의 : 02-2148-1853

## 함께 들러볼만한 곳

광장시장 [www.gwangjangmarket.kr](http://www.gwangjangmarket.kr) | 1905년 한성부에 등록된 공식 전통시장 제 1호. 양복지, 커튼 등 직물 도소매장으로 유명했으나 최근에는 미야김밥, 빈대떡 등 특색 있는 먹을거리로 더 유명해졌다.

창신동절벽마을 | 아찔한 절벽을 코앞에서 만날 수 있는 동네. 창신동의 절벽은 일제시대의 아픈 기억을 담고 있지만 처음 보는 이라면 모두 깜탕 할만큼 경이롭다.



## 나그네 쉬다 가라는 토박이 손짓

### 삼청동 팔판길



양반 골목으로 유명한 삼청동 팔판길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가(古街)’다. 한자리에 오래 머문 사람들의 여유와 인심이 넘친다. 곳곳에 놓인 의자에선 나그네를 반기는 토박이의 정이 느껴지고 거리가 주는 분위기나 인테리어 모두에 풍미가 담겨 있다.



팔판길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붙여졌다. 이 길에 8명의 판서가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렸다. 그러다보니 유래가 깊다. 동네에서 좀 살았다 하려면 적어도 3, 40년은 돼야 명함을 내민다. 주민만 오래된 게 아니다. 10년, 20년 된 단골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1940년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한 정육점은 이 길의 터줏대감 역할을 한다.

팔판길은 삼청동의 뒷골목이라 할 수 있다. 비교적 한산하고 복잡하지 않아 짧은 산책으로 적합하다. 길 서편엔 청와대 가는 길이 있고 다른 쪽 끄트머리엔 과거 국무총리 공관이 있다. 이런 여러 특징 덕에 호락호락한 가게라는 하나도 없다. 국회 의원들을 단골로 갖고 있는 민어 전문점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이나 찾는 타르트 가게도 있다. 부드러운 우유 식빵 가게는 항상 사람으로 붐빈다.



곳곳에 이처럼 벽화가 그려져 있다.

이 곳은 저녁 8시만 되면 깜깜해진다. 청와대나 화랑가 사람들이 주된 고객이다 보니 그들이 퇴근하면 동네 영업도 끝이다. 팔판길에 위치한 유명 재즈 클럽의 영업시간도 겨우 밤 11시 까지다. 길 양 끝에 청와대 경비가 있어 움츠러들기도 하지만 생각만큼 위압적이거나 불편을 주진 않는다. 오히려 길을 물을 때 친절한 답이 돌아온다.

이 길의 특이한 점은 집집마다 벤치와 의자를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길을 걷다 다리가 아프면 누구나 쉬었다 가라는 훈훈한 의미다. 곳곳에 벽화도 그려져 있다. 물을 마시고 남은 페트병을 활용해 꽃을 심은 모습도 보인다. MBC드라마 <운명처럼 널 사랑해>에서 등장한 잡화점도 있다.



가게 문 앞에 놓인 의자에서 훈훈한  
민심이 느껴진다.



초성회를 그려주는 사람도 있다.

눈에 띄이는 빨간 캐릭터



### 서울시티투어버스

삼청동 일대를 비롯, 서울 한양도성 인근의 주요 관광지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자. 1, 2층 버스를 골라 탈 수 있고 서울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야간 투어 코스도 있다.

[www.seoulcitybus.com](http://www.seoulcitybus.com)

주요 코스 : 광화문 – 서울역 – 이태원 – 동대문시장 – 인사동 – 삼청동 – 청와대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버스 : 종로01, 종로11, 272, 7025  
종로엔 다 있다 tour.jongno.go.kr  
문의 : 02-2148-1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부엉이박물관** [www.owlmuseum.co.kr](http://www.owlmuseum.co.kr) | 30년 간 수집한 3천여 점의 부엉이 관련 미술품, 공예품을 전시해놓은 공간. 따뜻한 차와 함께 부엉이에 관한 진귀한 자료들을 감상할 수 있다.

**운현궁** [www.unhyeongung.or.kr](http://www.unhyeongung.or.kr) | 흥선대원군의 사저로 고종이 출생하고 자란 곳. 궁궐은 아니지만 고종이 즉위하며 ‘궁’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고종이 머물던 창덕궁과의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해 운현궁과 이어지는 전용 문을 만들었을 정도다.



안국역 ③

**배고픈 나무꾼들의  
쉼터**

청진동  
**해장국골목**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게  
바로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이다.  
칼칼한 국물에 넉넉히  
담은 고기, 시래기와  
밥 한 그릇.  
한끼 식사는 물론  
늦은 저녁 술안주로도  
제격인 조합이다.  
전국 곳곳에 해장국  
맛집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장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청진동 골목길에 대해  
노래한다.



청진동에 해장국 골목이 생긴 건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 시대에 청진동 근방에는 나무 시장이 있었다. 100 리도 넘는 곳에서 칼바람을 헤치고 나무를 해온 나무꾼들에게 지친 몸과 맘을 따뜻하게 녹여줄 쉼터가 필요했다. 시장에 도착할 때쯤 그들의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고, 푸짐하게 배를 채워줄 음식을 찾게 됐다.



조선시대의 청진동은 관청과 중인들의 주택이 모여 있던 부촌이었다.

청진동 해장국 골목 입구

이럴 때 딱 좋은 먹거리가 바로 해장국이었다. 감자, 콩나물을 넣고 펄펄 끓인 국밥에 막걸리와 모주가 어우러지면 그만한 식사가 따로 없었다. 특히 이 곳에 맨 처음 문을 연 '평화관'이라는 국밥집은 나무꾼은 물론 각종 장사치들로 항상 붐볐다.

해장국 골목은 종로구청 건너편에 있다. 이곳에 해장국집이 자리잡기 시작한 건 1930년대의 일이다. 나무시장에 나무를 팔러 온 사람들을 위해 솔국을 파는 노점이 들어선 것. 당시엔 소뼈 국물에 우거지, 콩나물, 감자를 넣고 된장을 푼 구수한 국물과 밥을 팔았으나 6·25전쟁 이후에 선지와 양 같은 내장을 넣은 해장국으로 발전했다. 2000년대만 해도 청진동 전역에 해장국 집이 있었으나 재개발이 거듭되며 현재는 일부 지역만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청진동의 선지해장국은 맑고 깔끔한 게 특징이다. 진한 사골 국물에 재래식 된장을 살짝 끓여 고기를 더해 한 번 더 고아내고, 여기에 선지와 시래기를 넣어 풍풀 삶는다. 얼큰한 맛을 원하면 준비된 고추장과 고춧가루 등을 넣는다. 반찬은 깍두기 하나 정도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선지를 기본으로 한 청진동의 해장국은 전국의 선지해장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골목길 찾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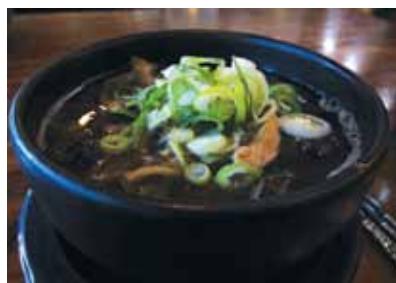
청진동 입구의 시전행랑 터



## 해장의 바른 말은 '해점'

흔히 해장국의 해장을 '장을 풀어준다(解腸)'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말은 원래 '해정(解醒)'에서 유래했다. 여기서 '정'은 '술 때문에 걸린 병'을 뜻한다. 즉, 해장이란 술병을 풀어준다'는 말이다. 해장국은 술병을 풀어주는 국인 것이다.

현재 청진동의 절반에는 현대식으로 리뉴얼한 상점가가 들어섰다.



맑고 깥끔한 게 특징인 청진동 해장국



단출한 반찬이지만 밥도둑이 따로 없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1호선 종각역 1번 출구  
버스 : 101, 103, 150, 160, 470  
종로엔디있다 tour.jongno.go.kr  
문의 : 02-2148-1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청계천** [www.cheonggyecheon.or.kr](http://www.cheonggyecheon.or.kr) | 길이 10.84 킬로미터, 유역면적 59.83제곱킬로미터의 개천으로 종로와 을지로를 나눈다. 왕십리 밖 살곶이 다리 근처에서 중랑천과 합쳐 한강으로 빠진다. 1960년 복개가 이뤄졌으나 2005년 22개의 다리를 중심으로 도심 속 하천으로 다시 개통됐다.

**경복궁** [www.royalpalace.go.kr](http://www.royalpalace.go.kr) | 조선시대 황제가 살던 궁.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궐이라고도 불렸다. 조선 초 정궁으로 사용됐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 이후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다 고종 때 중죽대 궁궐로 이용됐다. 풍수 지리적으로 명당에 위치해 있다.



**타닥타닥 튀김 옷에  
추억을 담아**

**회기역  
파전골목**



'내 인생 첫 술자리', '가장 기억에 남는 술자리'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때가 바로 대학 시절이다. 삶에 대한 울분과 한숨, 하지만 그 속에 찬란한 청춘을 품은 시기의 산증인이 바로 회기역 파전골목이다.



파전골목은 1970년대 한 판잣집에서 파전을 팔던 게 시작이었다. 이후 파전집이 계속 늘어 현재 수준으로 많아졌다. 40년이 된 원조 파전집을 포함, 여남은 파전 기계가 몰려 있다.

파전골목이 있는 휘경동 인근엔 대학교가 많다. 서울시립대와 경희대, 한국외대, 삼육대 모두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 고려대학교(2km), 한국예술종합학교(1.5km)도 가깝다는 걸 감안할 때 무려 6군데의 대학에 둘러싸인 셈이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손님은 역시 20대 젊은 층이다.

이 곳에 대학가의 냄새가 풀풀 풍기기 시작한 건 1980년의 일이다. 1호선인 회기역이 개통을 한 것. 자연스레 인근 학교로 통학을 하는 대학생이 몰리게 됐고 그들의 쉼터이자 아지트가 됐다. 가게들 또한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알기에 가장 비싼 안주도 채 만원을 넘지 않는다. 파전 뿐 아니라 제육볶음, 닭도리탕, 두부김치 등도 인기 있다.



파전골목 안내판

파전집들은 학생들과 함께 세월을 보냈다.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7~80년대, 세상에 대한 울분과 인생에 대한 회한을 토로하며 막걸리를 마시던 곳이 바로 이 파전집들이다. 70% 이상이 20대 학생들이지만 나머지는 이곳에서 젊음을 보낸 386세대들이다. 방황하던 시절, 솔잔을 기울이며 먹던 두툼하고 기름진 파전의 맛을 좀처럼 잊지 못하는 것이다.

파전골목의 파전은 독특하다. 일명 '돈까스 파전'이라고 불리는 데, 두툼한 튀김옷이 주는 꽉 찬 식감이 특징이다. 마치 반대떡을 연상케 하는 이 파전은 식사 없이 먹어도 속이 채 정도다.

## 골목길 찾아가기



파전집의 메뉴는 모두 1만원을 넘지 않는다.



벽에 빼곡히 적힌 낙서에서 학생들의 대학생生活在  
엿볼 수 있다.



파전에 막걸리, 각두기 한 접시면 푸짐한 고기 요리도  
부럽지 않다.



### 파전의 유래

파전은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에서 유래됐다. 송상현 부사와 백성들은 수만 일본군에 대항하며 농성했지만 무기가 바닥났고, 급기야 파를 썰어 왜군의 눈에 뿌리며 까지 저항했다. 송 부사와 백성 대부분이 전투에서 숨졌으나, 이후 동래 사람들은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파를 전으로 부쳐 임금에 진상했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버스 : 120, 147, 201, 261  
동대문구청 [www.ddm.go.kr](http://www.ddm.go.kr)  
문의 : 02-2127-4708

### 함께 들러볼만한 곳

**홍릉수목원** | 명성황후의 능인 홍릉 자리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수목원. 보유 수종만 1,200여 종에 이르고 개체 수는 20만이 넘는다. 산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산림과학관도 있다.

**광장시장** [www.gwangjang.kr](http://www.gwangjang.kr) | 1905년 한성부에 등록된 공식 전통시장 제 1호. 양복지, 커튼 등 직물 도소매장으로 유명했으나 최근에는 마야김밥, 빈대떡 등 특색 있는 먹거리로 더 유명해졌다.

## 서울에서 만나는 동마르뜨

### 서래마을 카페거리

〈아멜리〉의 오드리  
토투가 될 순 없지만  
그녀가 일하던 프랑스의  
카페의 고즈넉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아침마다 빵 냄새가  
향기롭고 낮 3시면 모든  
식당이 낮잠을 자는 거리.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의 프랑스, 바로  
서래마을 카페거리다.



인근에 위치한 서리풀 공원

서래마을은 '서울 속의 작은 프랑스'라고 불린다. 이 동네가 이런 분위기를 갖게 된 건 1985년 서울 프랑스 학교가 들어서면서부터다. 프랑스 학교는 서울에 사는 프랑스 아이들이 고향과 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서래마을 한복판을 지나는 카페 거리는 이런 프랑스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 자연스레 형성됐다.

여기서 '카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커피숍과 차이가 있다. 프랑스에서 말하는 카페는 커피는 물론 와인도 팔고 식사까지 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대부분의 카페에 발코니, 테라스가 있고 바게트 빵과 스테이크까지 취급한다.

카페거리에는 정통 프랑스식을 고집하는 음식점이 많다. 웬만한 식당엔 프랑스 출신 혹은 유학파 요리사가 있다. 이 식당들의

주말 저녁의 서래마을 거리. 휴일임에도 고즈넉한 분위기다.



특징은 낮 3시를 전후해 문을 닫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 곳의 빵집 또한 유명한데, 아침 시간이면 갓 나온 빵을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선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한국 주민과 거주 외국인과의 조화로운 모습이다. 외국인들은 한복을 갖춰 입고 설이나 추석 등 한국 명절을 함께 보낸다. 외국인 전용 주민 센터에서는 서울글로벌센터와 연계해 자수, 한자공예 등을 타향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프랑스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 2외국어로 한국어를 교육시킨다.

서래마을 카페거리는 지하철역으로부터 500미터 떨어져 있다. 이런 점이 바로 서래마을만의 한적하고 유럽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게 돋고 있다. 주말에 와도 명동, 강남처럼 북적거리지 않는다. 언제 어느 순간에나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카페거리다.

## 골목길 찾아가기



서래마을 카페거리 전경



서래마을의 서울프랑스학교  
프랑스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갓 구워낸 노릇노릇한 빵들. 아침이면  
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진다.



### 서래마을 크리스마스 장터

해마다 12월 둘째 주 토요일이면 서래마을 청룡  
어린이공원에서는 크리스마스 장터가 열린다.

이날 프랑스인들은 푸아그리를 비롯, 집에서 직접  
만든 치즈, 훈제 연어 요리 등을 가져와 사람들과  
나눈다. 공원 전체를 환하게 밝혀주는 알록달록한  
크리스마스 장식도 볼거리.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  
버스 : 142, 148, 406, 서초13, 서초14  
서래마을 블로그  
[blog.naver.com/young1089](http://blog.naver.com/young1089)  
서초구청 [www.seocho.go.kr](http://www.seocho.go.kr)  
문의 02-2155-0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예술의 전당 [www.sac.or.kr](http://www.sac.or.kr) | 우면산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복합예술센터. 예술 전반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뿐 아니라 원형광장, 전통한국정원,  
야외무대 등을 두루 갖춘 세계적 시설이다.

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http://www.nl.go.kr) |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국내 최고의 도서관. 국외도서 111만여 권,  
국내도서 610만 여 권 등 총 890만 여 권의 책을  
소장 중이다.



한국 연착륙 성공한  
중국 별미

건대  
양꼬치골목



삼겹살이나 갈비는 아니지만 빠른 속도로 대중에게 퍼지고 있는 게 바로 양꼬치구이다. 비린내를 줄여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중국 요리는 건대입구에 전문 타운으로 형성돼 한중 화합에 한몫하고 있다.



양꼬치골목이 들어선 건 2008년의 일이다. 한 양꼬치 집이 잘 되자 전문점이 한꺼번에 늘어난 것. 2008년 한 해에만 20여 개의 양꼬치 전문점이 늘어났다. 대부분 중국 동포가 운영한다. 지역적 특수성도 있다. 지금은 줄었지만 성수동에 공장이 많을 당시 그 곳에 다니던 중국 동포들이 이 지역에서 출퇴근을 많이 했다. 인근 건국대학교나 한양대학교의 중국인 유학생 또한 자양동에 많이 살았다. 자연스레 차이나타운이 형성됐다.



양꼬치 골목은 600미터 정도의 길이다. '화교거리' 혹은 '신차이나타운'이라고도 부른다. 한국어 보다 중국어 간판이 더 많다. 이 곳엔 꽤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중국인이 많다. 또 손님 중 한국인이 70% 이상이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인과 중국 민족이 어울리는 지역이 됐다.

양꼬치는 중국의 대표 거리 음식이다. 중국 서북부 '신장지역'에 사는 위구르족이 즐겨 먹던 음식이다. 양고기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 만점이다. 저칼로리, 저지방, 고단백의 대표 음식이다.

'양두구육(羊頭狗肉 : 양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판다)' 이란 중국 고사가 관히 있는 게 아니다.

이 동네의 양꼬치는 중국 본토의 것과 달리 노린내도 나지 않고 향신료 맛도 덜하다. 첫 번째 이유는 재료 때문이다. '양고기가 비리다'라는 속설은 정말로 비린 맛의 양을 썼기 때문이다. 20개월 이상의 양고기를 '머튼(mutton)', 12개월 미만을 '램(lamb)'이라 부르는데 예전에는 중국에서 주로 먹는 머튼을 쓴 것. 향이 강한 경우는 머튼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양꼬치골목의 고기는 대부분 램이다. 또 숯불로 초벌구이를 한 후 다시 굽기 때문에 기름이 적다.

반찬으로는 깍두기, 얇은 두부, 볶은 땅콩, 오이, 마늘이 나온다. 꺽질째 먹는 땅콩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찬. 양꼬치가 주로 나가지만 다른 메뉴도 많다.

# 골목길 찾아가기



## '자동 양꼬치 구이 기계'를 아시나요

양꼬치를 좌우로 움직여 고루 익게 하는 기계. 일정하게 양꼬치가 뒤집혀 타는 부위 없이 잘 구울 수 있다. 이 기계를 이용하고 싶다면 '자동 양꼬치'라고 적혀 있는 가게로 가자.

▣ 양꼬치와 반찬: 오이와 땅콩, 마늘, 깍두기, 얇은 두부 등으로 구성된다.



▣ 계란부추볶음, 즈란염통줄기 등 다른 음식들도 도전해 볼 만 하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2,7호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버스 : 240, 721, 2016, 3217, 4212  
광진구청 www.gwangjin.go.kr  
문의 : 02-450-1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어린이대공원 [www.sisul.or.kr/home\\_childrenpark](http://www.sisul.or.kr/home_childrenpark) |  
광진구 능동에 소재한 가족 단위 휴식 공간. 53만 제곱미터의 종합 공원으로 푸른 숲과 피란 잔디, 유락 시설들이 고루 자리하고 있다.

뚝섬유원지 | 음악분수, 수변광장, 장미정원, 자연 학습장 등으로 조성돼 있다. 자별레처럼 생긴 휴식 공간 '복합전망문화콤플렉스'로도 유명.



언 몸 녹이는  
뜨끈한 국물

## 삼각지 대구탕골목

유명한 맛집은 홍보가 따로 필요 없다. 그 맛에 반한 사람들이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기 때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위치한 대구탕골목이 딱 그런 곳이다. 대구탕의 얼큰한 맛에 감동한 군인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 골목에 대해 홍보를 마다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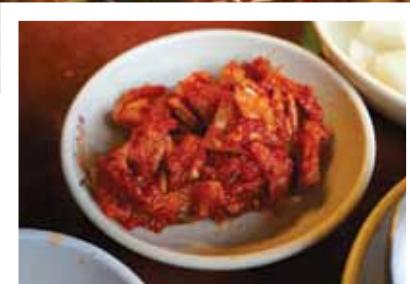
대부분의 대구탕집 앞엔  
출연한 방송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다.



대구는 대표적인 저열량 고단백식품이다. 100그램 당 열량이 80킬로칼로리이지만 단백질 함량은 17그램이나 된다.

'단백질의 보고' 라 불리는 닭가슴살(100그램당 16그램)보다 많다. 아미노산 중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시력 증강, 간 기능 보호에 좋다. 또 대구의 간에는 지방과 비타민A가 많이 함유돼 있어 간유의 원료로 사용된다.

워낙 유명한 맛집들이라 저녁 6~7시만 되면 대부분 식당에 자리가 없다. 그래도 2, 30분만 기다리면 금방 자리가 생기니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자.



◀ 살이 꽉 찬 대구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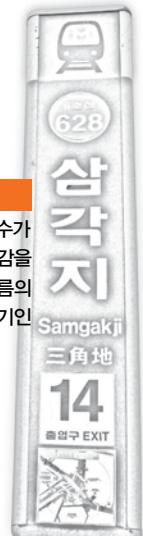
◀ 함께 나오는 아가미젓갈도 일품이다.



◀ 대구탕골목의 식당들엔 단골 손님이 많다.

## 겨울 대구가 보악

대구탕은 겨울에 먹어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 조선 최고의 명의 하준은 동의보감을 통해 '대구는 기운을 보하는데, 내장과 기름의 맛이 더욱 좋다'고 설명했다. 대구는 산란기인 12월부터 2월까지가 맛이 가장 좋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4,6호선 삼각지역 14번 출구  
버스 : 용산03, 100, 150, 151, 502  
용산구청 [www.yongsan.go.kr](http://www.yongsan.go.kr)  
문의 : 02-219-6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전쟁기념관** [www.warmemo.or.kr](http://www.warmemo.or.kr) | 호국 자료의 수집, 호국정신 배양 등을 목적으로 1994년 개관된 기념관. 연면적 2만 5천 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무려 16만 여 명에 달하는 전사자 명부가 봉안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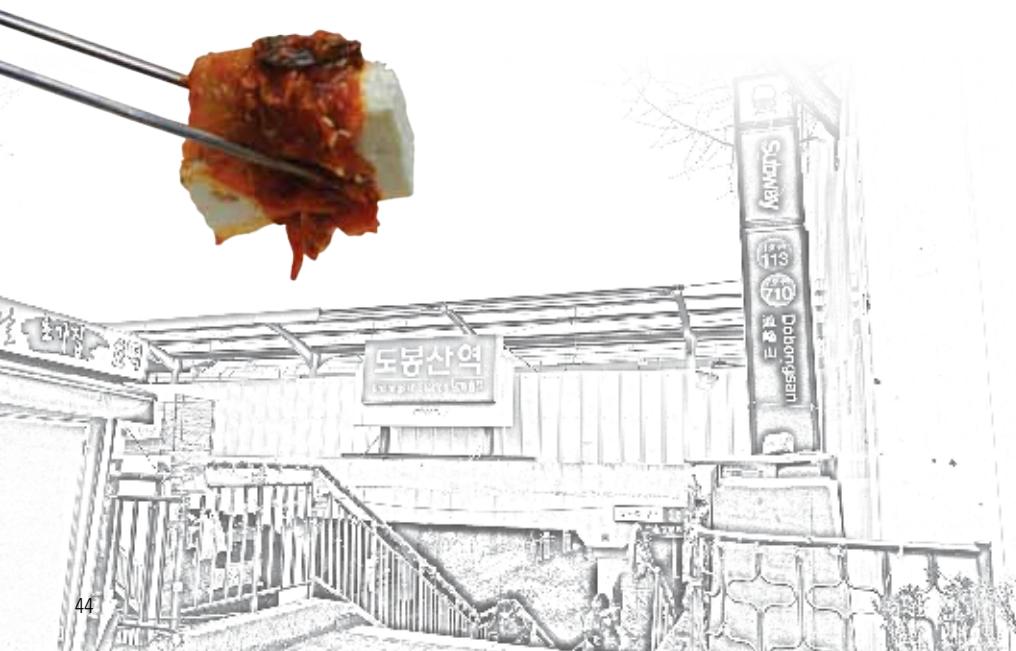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or.kr](http://www.museum.or.kr)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국립박물관으로 30만 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 최대 규모의 박물관으로 고대관, 기증관, 서화관, 아시아관 등 6개의 상설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바람 타고 풍겨오는  
고소한 향기**

**도봉산  
두부골목**

더 빠르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세태에 반해 ‘느리지만 건강하게’ 를 외치는 웰빙 열풍이 불고 있다.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두부골목은 웰빙의 대표 식품인 두부를 가정식으로 직접 만들어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산에서 내려와 걸들이는 막걸리 한 사발도 그 맛을 더욱 깊게 만든다.



두부골목이 모습을 갖춘 건 1980년대부터다. 도봉산 입구에 진을 치고 있던 노점을 좀 더 아래로 옮겨 정식 매장으로 바꾼 것. 2007년 도봉산 국립공원이 무료로 개방되면서 갑자기 찾는 이들이 늘었다. 거기에 2000년대 후반부터 웰빙 열풍이 일어나며 대표 음식인 두부의 인기도 많아졌다. 현재 도봉산은 연간 1000만 여 명이 찾는 주요 등산코스다.

등산객들이 대부분이지만 오직 이 곳의 손두부를 먹기 위해 오는 사람도 많다. 이 곳 두부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할 정도라고. 도봉산 손두부의 차이는 일단 매일매일 주인장이 직접 만든다는 점이다. 강화도 염전에서 공수해오는 천연 간수를 사용해 두부를 만든다. 두부 골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이 가게 앞이나 뒤편에서 두부를 만드는 모습이다. 매일 24시간 전에 콩을 불리고 갈아 콩물을 끓인다. 비지를 걸러내고 천연 간수를 넣으면 두부가 완성된다.

이 곳의 두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공장식 두부와 다르다. 텁텁한 맛이 없으며 부드럽다. 담백할 뿐 아니라 고소하다.갓 내온 따끈한 두부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양념이나 간장 없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

이 곳의 메뉴는 해물 순두부, 두부찌개, 두부버섯전골, 두부보쌈, 두부김치, 모듬 두부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일단 두부요리를 시기면 반찬으로 비지가 나온다. 모듬 두부는 3색 두부에 깻잎, 양파 등을 새콤하게 무쳐 함께 먹는다. 푸른색, 주황색, 흰색의 두부가 나오는데 푸른 것은 쑥을 사용한 두부, 주황색은 당근으로 만든 것이다.



가게 입구에서는 이렇게 가정식 손두부를 만드는 장면을 구경할 수 있다.



두부골목의 손두부는 직접 만들어 공장식보다 더 부드럽고 고소하다.

# 골목길 찾아가기



후식으로 먹는 콩비지.  
포장된 콩비지를 손님들에게 공짜로 주기도 한다.



두부골목의 주된 손님은 역시 도봉산을 찾은 등산객이다.



도봉산 입구에 두부집들이 있다.

## 알고 오르면 더 재미있는 도봉산

도봉산에는 등산과 관련한 여러 볼거리가 있다. 국립산악박물관에서는 산악인들이 사용하던 장비들과 캠핑문화의 변천사를 볼 수 있다. 도봉 탐방자원센터에서는 등반 코스 및 도봉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 수 있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1,7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  
버스 : 106, 107, 108, 140, 141  
도봉구청 [www.dobong.go.kr](http://www.dobong.go.kr)  
문의 : 02-2091-2120

## 함께 들러볼만한 곳

**북서울 꿈의숲** [dreamforest.seoul.go.kr](http://dreamforest.seoul.go.kr) | 강북구 번동, 미아동, 성북구 월곡동 일대에 걸쳐 있는 강북 최대의 공원. 아트센터, 수목원은 물론 배드민턴장, 체력 단련장 등 위락 시설이 마련돼 있다.

**태릉** | 중종의 두 번째 계비 문정왕후 윤씨의 무덤. 융비의 단릉(單陵)이라 믿기 힘들만큼 웅장한 능으로, 조성 당시 문정왕후의 세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케 한다. 12면 병풍석에 12지신상과 구름 문양을 새겼고, 병풍석 위의 만석 중앙에 12간자를 문자로 쪼아 넣었다.





## 젊음의 흐름에 세월을 맡기다

### 신촌 연세로

탄생부터 지금까지 오직  
젊음을 위해, 젊음에  
의해 변화하고 발전한  
곳이 바로 신촌 연세로다.  
연세대를 비롯해 인근 6개  
대학교에서 뿐만 나오는  
젊음의 혈기가 100년 넘는  
시간 동안 이곳을 청춘의  
메카로 만들었다. 세대가  
바뀌어도 이곳의 흐름은  
세월보다 빠르다.



연세로는 신촌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길이다. 신촌이란 이름이 붙은 건 조선시대 초의 일이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천도의 새 도읍지로 내정했던 것. 결국 도성이 들어서진 않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 서부권의 중심지로 가장 활기가 넘치는 동네 중 하나다. 지리적으로는 안산과 노고산, 와우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지역에 큰 상권이 형성된 건 인근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1914년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가 들어선 후 이화전문학교가 동쪽에 자리 잡았다. 가깝게는 서강대학교, 흥익대학교가 있고 멀리서는 명지대학교와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들도 몰려온다. 그릴기에 신촌과 연세로 지역의 분위기는 다분히 '학생적'이다. 연세대 앞에는 주머니 사정 빤한 학생들을 위해 저렴한 고기집들이 늘어서 있고 하숙촌과 커파숍, 문구점 등도 많다. 특히 연세로 양쪽 뒤편으로는 하숙촌이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여기다.



주말이면 버스도 차도 못 다니는  
차 없는 거리로 바뀐다.

긴 머리에 청재킷을 입고 춤추던 디스코텍 '스페이스', 로큰롤을 논하며 맥주 한 잔을 들이 키던 '우드스탁'도 모두 신촌의 오래된 랜드마크다. 지금은 잠망경 조형물이 약속 장소로 사랑받지만, 신촌에서 좀 놀아본 사람들은 "백화점 시계탑에서 만나"라는 말이 더 익숙하다. 오랜만에 신촌을 방문한 사람들은 넓어진 연세로를 보며 입을 꽉 벌리고 감탄한다. 곳곳에 앉아 쉴 수 있도록 벤치가 생겼고, 흥익문고 앞에는 최인호 등 유명 문인의 핸드 프린트가 새겨졌다. 버스 정류장도 깔끔하게 꾸몄고 횡단보도의 신호등도 최소화했다.

최근 연세로는 차없는 거리로 다시 태어났다. 4차선의 도로가 2차선으로 줄었고 주말에는 사람만 다닐 수 있다. 주말이면 신촌로터리와 종양사거리에서 공연이 열리고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파는 상인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보행자들을 위해 도보 턱까지 없앴고 곳곳에 아기자기한 조형물이 놓여 있다. 신촌의 추억을 노래하는 이색 공간 '신촌 플레이 버스'도 새 명물로 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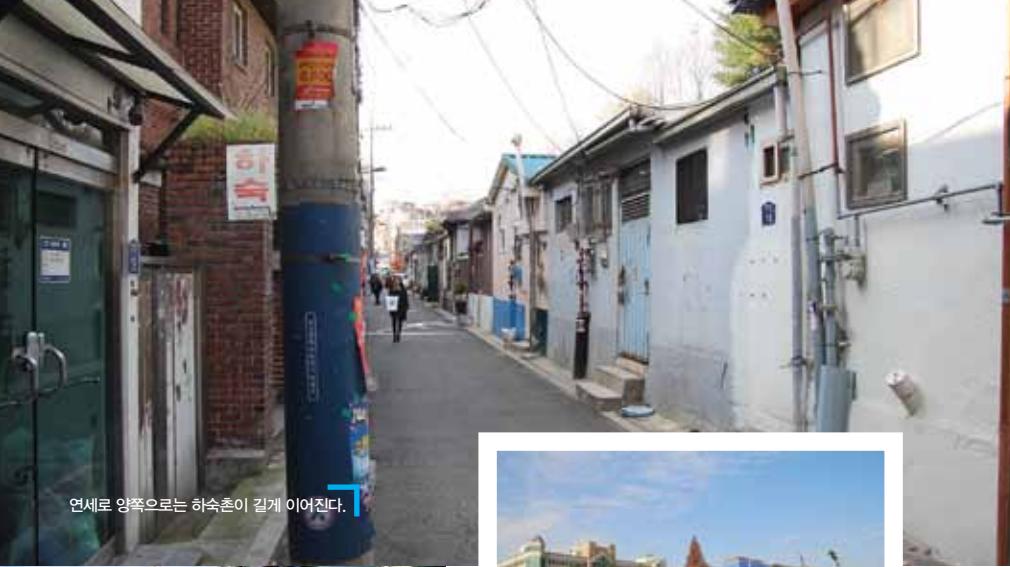
수많은 연인들의 약속 장소로 애용됐던 시계탑  
사실 텁이라기보다는 시계 조형물에 가깝다.



흥익문고 앞에 있는  
소설가 최인호의 핸드프린팅



# 골목길 찾아가기



연세로 양쪽으로는 하숙촌이 길게 이어진다.



연대 바로 앞에 위치한 창천교회와 약국 거리



연세대학교 앞문. 연세로의 이름은 이 곳에서 따왔다.



연세로의 오랜 터줏대감 흥의문고. 사라질 뻔하다 시민들의 반대 운동으로 살아남았다.



## 신촌 플레이버스

2층 버스를 리모델링한 놀이 공간으로 신촌의 다양한 지역이야기 자원을 음악적으로 표현했다. 150여 개의 LP, CD 음악을 들을 수 있고 DJ 박스가 있어 다양한 막상이 가능하다. 신촌의 청춘이야기 코너에서는 신촌의 옛날과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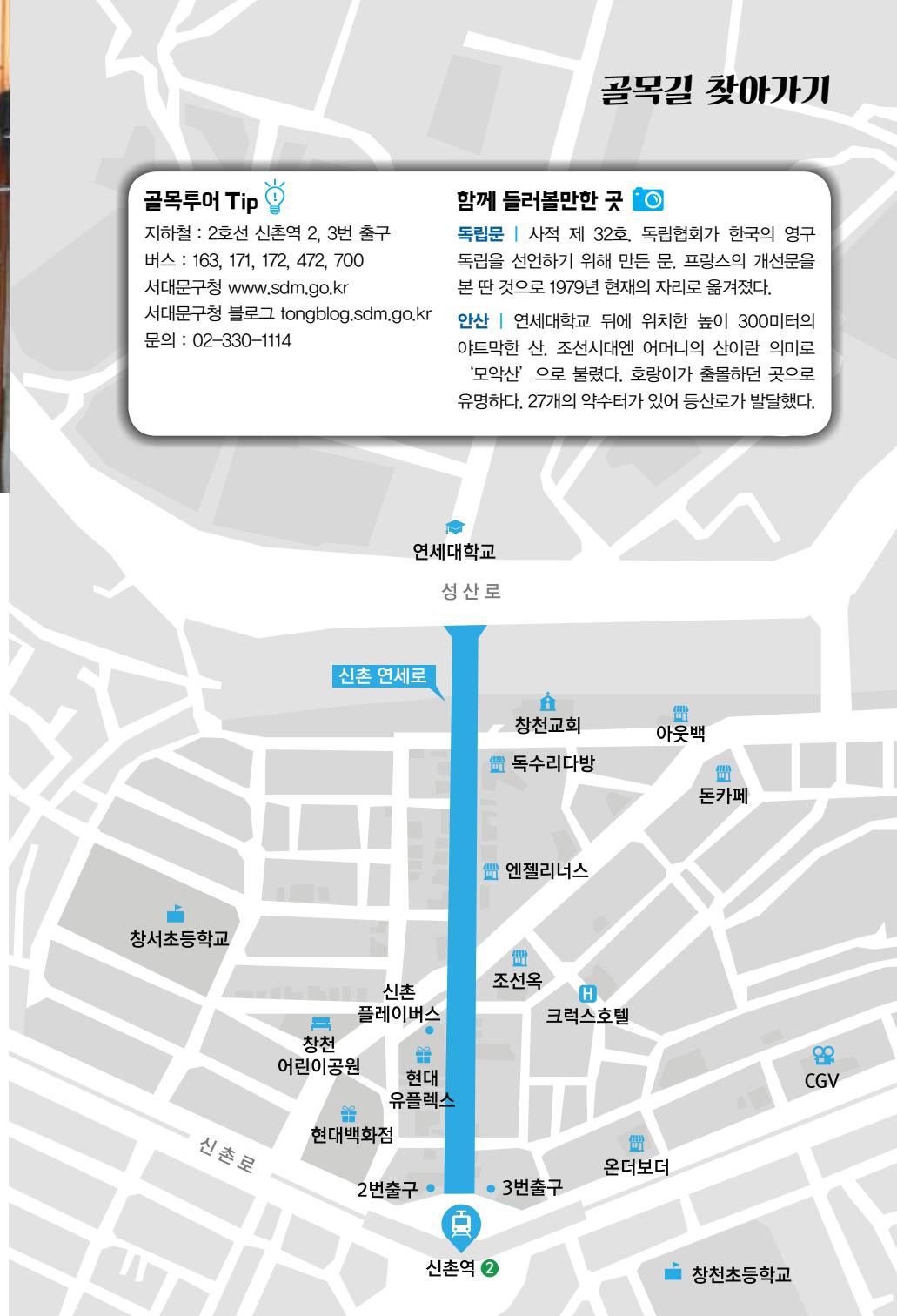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2호선 신촌역 2, 3번 출구  
버스 : 163, 171, 172, 472, 700  
서대문구청 www.sdm.go.kr  
서대문구청 블로그 tongblog.sdm.go.kr  
문의 : 02-330-1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독립문** | 사적 제 32호. 독립협회가 한국의 영구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 만든 문. 프랑스의 개선문을 본 딴 것으로 1979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졌다.

**인산** | 연세대학교 뒤에 위치한 높이 300미터의 아트막한 산. 조선시대엔 어머니의 산이란 의미로 '도악산'으로 불렸다. 호랑이가 출몰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27개의 약수터가 있어 등산로가 발달했다.



## 기차 떠난 자리에 채운 희망

홍대  
땡땡거리



산울림소극장에 바로 붙어 있는 와우 산로 32길.

경적을 불며 달리는 기차도, 짐 보따리를 들고 오가던 인파도  
이제 보기 힘들지만, 새로운 실험이 꽂피고 있다.  
예술가들과 상인의 화합이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땡땡거리 입구에 위치한 산울림소극장



이제는 공터로 변해버린 경의선 기찻길터



땡땡거리라는 독특한 이름이 붙은 건 경의선 때문이다. 예전에 이곳으로 경의선 기차가 지나갔는데, 기차가 지나갈 때 내려가는 건널목 차단기의 '땡땡' 소리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하지만 2005년 경의선의 지하화가 시작되며 거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주된 교통편 하나가 줄어드니 사람들도 뜸해지고 상권도 가라앉았다. 깔려 있던 레일까지 철거하자 기찻길은 말 그대로 황량한 공간이 됐다.

땡땡거리에 다시 활기가 돌아온 건 이곳에서 가게를 하는 한 주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거리 곳곳에 있는 음악인, 미술인들의 힘을 빌려 이 곳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밀이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땡땡거리마켓'이다.

이 작은 시장은 2014년 6월 몇 명의 셀러들을 모아 시작됐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이후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입소문과 방송을 타고 알려졌고 가들이 되자 그 규모가 더욱 커졌다.



땡땡거리의 입구 언덕엔 인디밴드의 고향과도 같은 '산울림 소극장'이 있다. 또 홍대 쪽으로는 많은 미술학원이 있다.

위치가 그렇다보니 예전부터 많은 예술가들이 살고, 머물고, 지나다녔다. 그런 예술가들이 이제 거리를 살펴보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다. 동네 사람들은 땡땡거리를 '홍대 주변에서 유일하게 거대 자본에 잠식되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오르는 땅값, 집값의 여파는 이곳까지 미치고 있다. 특히 2017년 원공으로 계획된 경의선 공원 계획이 발표되며 심해졌다.

땡땡거리의 변화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동네잡지인 '땡땡 매거진'도 만들어지고 예술가와 주민을 연결해주는 '1촌 맷기 프로젝트'도 계획 중이다. 또 연중 몇 차례씩 관광객과 예술가, 주민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축제도 열릴 예정이다.

## 골목길 찾아가기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되는 땅뱅거리마켓

### 독특한 물건이 있다면 땅뱅거리마켓에서

땅뱅거리마켓에서는 시장에 좋은 물건을 내놓을 셀러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 참가비는 5천원이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3천원만 내면 된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아까운 물건을 사고 팔며 물물 교환도 가능하다.



직접 만든 장신구부터 족석에서 그려주는 그림까지 다양한 코너가 있다.

이제는 예술가들의 놀이터로 변한 땅뱅거리의 기찻길 터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2호선,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6번출구  
버스 : 270, 271, 273, 602, 603, 707  
마포구청 www.mapo.go.kr  
문의 : 02-3153-8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메세나폴리스 [www.mecenapolismall.co.kr](http://www.mecenapolismall.co.kr) | 협곡형  
스트리트 몰. 코엑스몰이나 타임스퀘어처럼 밀폐  
된 공간이 아닌 가운데 천정을 뚫어 쾌적함을  
더했다.

와우산공원 | 마포팔경 중 하나인 와우산에 자리한  
공원. 숲을 따라 산책하면 약수터를 지나 자연학습  
관찰원으로 이어진다. 홍익대학교 뒷산으로도 알려  
져 있다.



## 서울 중심에서 느끼는 한국의 멋

### 종로 인사동거리



세상이 급변하는 와중에도  
한국 고유의 멋을 간직하고  
계승하려는 거리가 있다.  
한국의 많은 예술품을 볼  
수 있고 전통차는 물론  
사찰 음식까지,  
'한국' 하면 떠오르는  
많은 것들이 인사동 거리에  
있다. 한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 중  
하나지만, 그 속엔 한국의  
아름다움은 물론 시대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들의  
사연도 녹아 있다.



문선박대

해질 무렵 낙과 집 문은 누르리니  
주인들은 손을 벽지으며 나를 쫓는구나

두견새드 아낙한 민심을 알았을은지  
돌아가리고 숲에서 물어 나를 달래니

김병연(金昇연)

인사동 거리 곳곳에 이런 시가 새겨져 있다.



인사동 거리는 인사동 63번지에서 관훈동 136번지로 이어지는 700여 미터의 길을 일컫는다. 인사동이란 법정동이고 행정 구역 상으로는 종로 1~4동에 속한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예전에는 삼청동에서 시작해 청계천에 이르는 개천이 있었다. 인사동 거리는 그 개천을 따라 형성됐다.

인사동은 관가인 동시에 거주 지역이었다. 국가 공신들의 업적을 조사하는 '충훈부'가 있었고, 풍기문란 등을 단속하던 '이문'도 있었다. 인사동의 정체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관공서는 회화를 가르치고 관련 고시를 치르던 '도화원'이다. 도화원의 영향으로 이곳에는 골동품 가게나 화랑, 표구 등이 몰려들었다. 주로 중인이 거주했으나 이이, 이완, 조광조 등도 이곳에 살았다. 전통문화예술의 보루로 인식되는 곳이지만 이런 특징으로 인해 문화 약탈의 관문 노릇을 했다. 일제강점기 양반층이 몰락하며



인사동 거리 전경

갖고 있던 고미술품이나 골동품을 이 곳에 내다 팔았다. 일본인은 이 곳에서 한국 예술품을 손쉽게 얻었다.

전통문화의 거리는 말 그대로 한국 고유의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부채, 담뱃대, 불상에서부터 서예작품, 한국화 등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다. 식당이나 찻집, 주점 등도 한국적인 곳이 많다. 떡과 다과를 비롯, 빈대떡, 막걸리까지 각양각색이다. 서울시는 이런 인사동의 특징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988년 전통문화의 거리로, 2002년에는 제 1호 문화지구로 지정했다. 인사동 거리는 외국인이 반이 넘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특히 주말이면 다양한 피부의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간판이 한글이라는 것도 이색적이다. 쌈지길이라는 독특한 전시공간도 있다. 2004년 문을 연 공예 전문 쇼핑몰로 50여 개의 공예품 가게와 무형문화재 상설전시판매장이 있다.

인사동을 자세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일단 관광안내소에 들르자. 영어와 중국어, 일어까지 가능한 문화해설사가 상주해 외국인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 주말에는 '걷고 싶은 거리'로 운영돼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 골목길 찾아가기



갖가지 모양의 불상도 인사동에선  
쉽게 찾을 수 있다.

가지런히 걸려 있는 볶을 감상하는 행인

## 한옥 체험살이

인사동은 물론 종로구 전역에서 즐길 수 있는 한옥 체험 코스, 기존 호텔 등의 숙박 시설과는 달리 한국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가족의 일원처럼 생활할 수 있다.



한복은 물론 부채, 담뱃대까지 온갖 한국적인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인사동 거리에는 영어로 된 간판이 거의 없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버스 : 100, 101, 103, 270, 370  
문화자구 인사동 [hiinsa.com](http://hiinsa.com)  
종로엔 다 있다 tour.jongno.go.kr  
문의 : 02-737-7890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종묘** [jm.cha.go.kr](http://jm.cha.go.kr) | 조선 역대 임금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곳으로 사적 제 125호다. 조선 왕조의 유교적 전통인 왕실 제례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총면적은 5만 6,503평.

**청계천** [cheonggyecheon.or.kr](http://cheonggyecheon.or.kr) | 길이 10.84킬로미터, 유역 면적 59.83제곱킬로미터의 개천. 1960년 복개 공사를 통해 도로 밑으로 매몰됐으나 2005년 10월, 복원 사업을 통해 45년 만에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옛 건물 틈새 번쩍이는  
아티스트의 숨결**

**이태원  
우사단길**

60년대와 21세기의  
조화로운 모습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할까. 영화 세트나  
박물관에서나 겨우 찾을 수  
있지만 이태원 우사단길의  
젊은 아티스트들은 이를  
생활 속에서 만들어 냈다.  
들여다볼수록 더 제대로 된  
맛이 느껴지는  
절묘한 곳이다.



우사단길은 태종 때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 세운 '우사단(雩祀壇)'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해방 이후 판자촌이 집결해 있었는데 1960년대 정부의 양성화 사업으로 벽돌집촌으로 바뀌었다. 이후 재개발 움직임이 있었으나 취소됐다.

이 길의 가장 큰 매력은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절묘한 조화다.

드라마 '아인시대'에 나올 것  
같은 구식 이발소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옆에는 최신 로스팅 기계가  
있는 커피숍이 나온다. 삶의 고단  
함을 표정 가득 담고 있는 할머니  
가 지나가는가 하면 투 불력컷  
헤어의 화려한 청년이 나타난다.

우사단길이 현재처럼 바뀌기  
시작한 건 젊은 아티스트들에 의  
해서였다. 건물이 낡아 임대료가  
저렴했고, 자연스레 풍기는 빈티지한 느낌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사단길 한 가운데 있는  
서울중앙성원, 한국 이슬람교의  
총 본산으로 70년대에 건립됐다.

이들은 우사단길을 좀 더 색다른 곳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곳곳에 그림이나 문구를 새기거나 다른 아티스트들을 초대했다. 이후 스튜디오나 카페가 들어서고, 센스 있는 주인장들이 하나 둘 늘었다. 서울중앙성원 옆 계단에서 열리는 벼룩시장인 '계단장'도 아이디어 중 하나다.

이 곳의 매력은 눈을 조금만 크게 떠 보면 잘 볼 수 있다. 6, 70년대를 연상케 하는 조금은 난잡한 거리에 뜯금없이 아기자기한 소품점이 나온다. 무슨 메뉴를 파는지 알 수 없는 식당도 있고, 가게인지 사무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간도 속속 보인다. 우사단길의 요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한 카페에 적혀 있는 글귀다. '이 공간은 저희들이 좋아서 만든 공간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고 싶어 만든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편히 들어오셔서 쉬다 가세요.'



# 골목길 찾아가기



주말 '계단장' 이 열리는 계단,  
평소 보기 힘든 센스 넘치고 웅골찬 물건들이 많다.

## 들어와, 계단장

계단장은 60여 명이 넘는 지역 아티스트들이 만든 벼룩시장이다. 깜찍한 모양의 쿠키부터 아프리카 풍의 목걸이까지 다양한 물건을 판매 한다.

운영기간 : 3월 ~ 10월

운영시간 : 12:00 ~ 18:00

장소 : 서울 이슬람중앙성원 옆 계단 일대



우사단길에는 이처럼 아기자기한 숨이 많다.  
흉내거리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

한 예술가의 스튜디오. '들어와' 라고 적힌 팻말을 보기 전까지 뭐하는 곳인지 종잡기 힘들다.



'밥', '술'이라는 글자로 겨우 식당이란 걸 알아차릴 수 있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6호선 이태원역 3번 출구

버스 : 용산01, 400, 405, 421

이태원관광특구연합 [www.itaewon.or.kr](http://www.itaewon.or.kr)

용산문화체육관광 [www.yongsan.go.kr/site/ct](http://www.yongsan.go.kr/site/ct)

페이스북 [www.facebook.com/wosadan](https://www.facebook.com/wosadan)

문의 : 02-797-7319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삼성미술관 리움 [leuem.samsungfoundation.org](http://leuem.samsungfoundation.org)

| 이병철 전 삼성회장이 수집한 미술품을 모아 설립 한 미술관. 한국의 고미술품과 앤디 워홀, 백준준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상설 전시된다.

경리단길 | 최근 떠오르고 있는 다국적 맛집 거리. 캐나다 피자는 물론 프랑스식 프라이, 멕시코의 타코와 그리스 요리 팔라펠까지 맛볼 수 있다.

이색적인 매력이 있는 곳이다.



## 백사실계곡 밑 낙원 같은 동네

### 종로 부암동길

부암동길은 낙원 같은 동네라 불린다.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능금나무와 담쟁이덩굴이 방문객을 반긴다. 경복궁 북서쪽에 위치한 이 깊은 동네는 여러 이유로 인해 도시화 없이 추억과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카페 거리가 주는 휴식과 백사실 계곡이 주는 꾸밈없는 자연까지 만끽할 수 있다.



부암동길의 시작 지하문(청의문)

부암동길의 유래는 '부침바위' 설화에서 왔다. 부침바위는 몽골이 침입했던 고려 초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바위는 경사가 가파르고 미끄러운데, 여기에 깨끗하고 납작한 돌을 올려 자기 나이만큼 문질렸을 때 돌이 떨어지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한 아낙이 몽골로 강제 징집된 남편을 위해 지금 정성으로 기도를 했고, 소원을 빌지 몇 달째 되는 날 돌이 딱하고 달라붙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이 돌아왔다. 부암동길은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윤동주문학관부터 언덕을 따라 올라가면 아기자기한 카페가 이어진다. 이 곳을 대중에 알린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의 커피숍도 부암동길에 있다. 젓가락 갤러리, 밀랍인형 갤러리 등 특이한 갤러리도 많다. 맛집 가이드에서 본 유명한 음식점도 족족 박혀 있다.



백사실 계곡은 조선시대의 문인 이항복의 호 '백사'에서 유래했다. 이 곳에 이항복의 별장이 있었다. 부암동길에서 백사실 계곡으로 넘어가는 입구는 마치 숨겨진 정원으로 향하는 문과 같은 느낌을 준다. 아기자기한 집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울창한 숲이 나타나기 때문. 인왕산과 북악산이 주는 고즈넉함과 백사실 계곡의 존재는 부암동을 '무계(武溪)' 동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했다. '무계'란 낙원을 뜻한다.

부암동길이 이런 정겨운 모습을 유지하는 큰 이유는 가까운 곳에 청와대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보호구역에 개발제한구역인 탓에 신축 건물이 흔치 않고 높은 건물도 없다. 대중교통으로 조금 번거로워 근처의 삼청동과 비교해 덜 혼잡하다.

# 골목길 찾아가기



정감 있는 마을 지도도  
이렇게 있다.

## 함께 둘러보는 '서촌'

경복궁 쪽에서 부암동으로 가는 길에 서촌이 있다. 자동차로 한달음에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만 발품을 더 팔아 한국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서쪽 마을 서촌을 들러보자. 한옥이 모여 있는 북촌과는 다르게 실핏줄처럼 얹히고 설킨 추억 속의 장면들이 계속된다.



오르막길이 계속 이어져 편한 신발이 좋다.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배경이 된 카페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  
버스 : 1020, 7022, 7212, 종로13  
종로엔 다 있다 tour.jongno.go.kr  
문의 : 02-2148-1114

## 함께 둘러볼만한 곳

**북악스카이웨이** | 북악산 능선을 따라 자하문에서 정릉 아리랑고개에 이르는 길이 약 10킬로미터의 도로, 구불구불한 나선형으로 돼 있고 도로 근처에는 서울의 옛 성터와 팔각정 등 수려한 경승지가 많다.

**실파울관** [www.shuim.org](http://www.shuim.org) |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현대문화예술과 접목시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박물관. 삶과 죽음이라는 기법지 않은 주제를 일상에서 편히 다루고자 설립자의 집을 전시실과 휴식처로 개조했다.



## 쇼핑은 가로수길, 밥은 세로수길

신사동  
가로수-  
세로수길



지나치는 행인들조차 무심한 듯 시크한 패션 고수로  
보이는 신사동 가로수길은 여행을 가지 않아도 이국적  
매력을 물씬 풍기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쇼핑 관광 1번지다.  
3~4년 전부터 기업은행 신사동 지점에서 신사동 주민  
센터에 이르는 약 700미터 거리가 상점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가로수길을 가로지르는 이면도로가에 이색  
카페와 가게들이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젊은이들과 관광객들의 인기를 업고 가로로, 세로로  
확장되고 있는 패션왕들의 골목을 거닐어보자.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는 가이드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삽 전경

대한민국 패션 1번지, 가로수길은 1989년 프랑스 패션교육  
기관 에스모드와 91년 서울모드패션전문학교가 들어서며 디자  
이너 지양생과 유학파 디자이너의 아지트로 자리잡았다.  
1982년에는 종로의 예화랑이 이전하여 강남 최초의 상업  
화랑을 열며 가로수길은 '예술가의 거리'로 불리기 시작했다.  
편집샵과 팝업스토어가 많고 프리마켓도 자주 열려 좋은 상품  
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있다.

가로수길이 패션 1번지라면, 뒷길 상권의 전성시대를 연 세로수  
길은 떠오르는 핫 플레이스다. 세로수길은 3호선 신사역 8번  
출구로 나와 도산공원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가로수 길의 양 옆  
골목을 따라 흘러져 있는 길이다. 세로수길이라는 이름에는 2  
가지의 유래가 있다. 좁은 뒷에 한자의 '가늘 세(細)' 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가로수길에 대비되는 의미로 가로의 반대말  
이라는 설이다. 이름처럼 '쇼핑은 가로수길에서, 밥은 세로수  
길에서'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2013년부터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비싼 임대료 탓에 가로수  
길을 떠나 이곳으로 모여들면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었다.  
소규모 아트샵이나 공방 등 원래 가로수길의 예술가 거리 성격  
을 세로수길이 이어받았다. 젊은이들의 아지트답게 SNS의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진 이 곳의 주요 이슈는 맛집 정보다.



마치 대사관처럼 보이는 이곳은 유명한 가로수길 맛집이다.  
스페인요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 곳

## 바닥을 보면 정보가 보인다!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주요 관광 명소 보도블럭에 QR코드를 부착해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주변 관광지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싸이 효과로 강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코엑스와 가로수길에 특수 제작한 인조대리석 보도블럭 내 QR 코드를 부착, 매립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번역된 모바일페이지로 접속하여 위치안내, 쇼핑, 레스토랑, 카페, 주변 관광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가로수길 곳곳에 안내지도가 있다.



거리 곳곳의 매대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아색적인 외관 인테리어의 가게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3호선 압구정역 5번출구,  
신사역 8번 출구

버스 : 145, 148, 240, 440, 4212

강남관광정보센터

[kr.tour.gangnam.go.kr](http://kr.tour.gangnam.go.kr)

가로수길&세로수길 블로그 “더단골”  
[blog.naver.com/thedangol](http://blog.naver.com/thedangol)

문의 : 02-3445-0111

## 함께 들러볼만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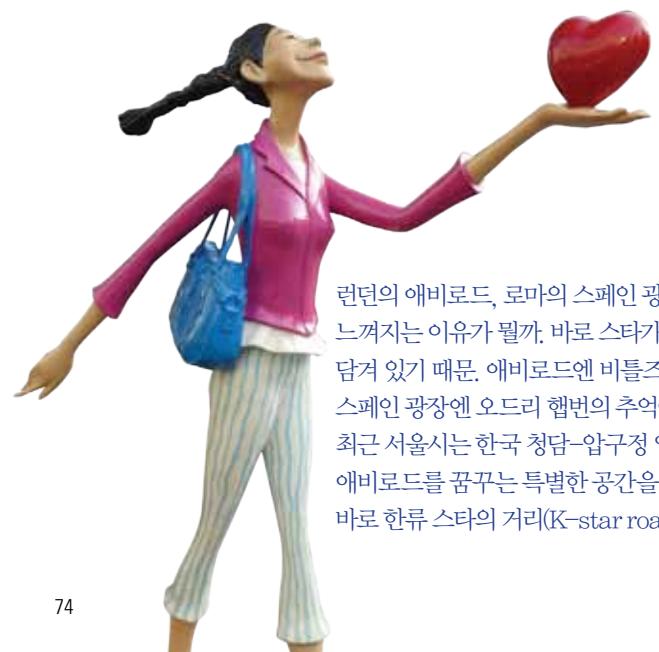
**한류스타거리** | 강남을 흥미롭게 여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Tip! 비틀즈의 런던 애비로드, 오드리 헵번의 스페인 광장 등 스타와 이야기가 있는 세계의 명소 못지 않은 곳이 바로 K Star ROAD, 바로 한류스타거리다. 한류스타들이 즐겨찾는 삽들과 연예기획사 등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압구정로데오거리** | ‘로데오거리’라는 이름은 1990년대 초 자유를 찾는 젊은이들이 베버리힐즈의 로데오거리를 표방하며 압구정 패션거리에 붙여준 별명이다. 고급의류, 잡화매장이 가득한 이 곳은 외국계 브랜드가 한국 시장의 성공 여부를 기점하기 위한 파일럿(시험) 매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애비로드 꿈꾸는  
한류의 중심

청담  
한류스타의  
거리



런던의 애비로드, 로마의 스페인 광장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바로 스타가 있고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 애비로드엔 비틀즈가, 스페인 광장엔 오드리 햅번의 추억이 있다. 최근 서울시는 한국 청담-압구정 일대에 또 다른 애비로드를 꿈꾸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바로 한류 스타의 거리(K-star road)의 거리다.

한류스타의 거리는 2014년 3월 조성됐다. 'K-ROAD'라는 도시 브랜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담동과 압구정동 일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한류가 급속도로 떠오름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에게 더 풍부한 즐길거리를 선보이기 위해 조성됐다. 한류 스타들이 즐겨 찾는 숍들은 물론 이를 배출한 연예 기획사들을 둘러볼 수 있다.

이 곳에 한류를 위한 거리가 조성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연예 기획사들이 몰려 있다는 점이다. JYP, SM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큐브, FNC 등 크고 작은 기획사가 있다. 연예인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가만히 카페에만 앉아 있어도 이들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형 연예기획사 부근의 커피숍들에는 한류 스타들을 만나기 위한 팬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두 번째는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다는 점이다. 백화점을 필두로 많은 패션 매장이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갤러리도 많다.

이 곳의 볼거리는 스타들의 핸드프린팅이다. 중국 최고의 한류스타, 장나라도 있고, 카라의 한승연, 2PM 옥택연의 손도장도 찾을 수 있다. 또 스타들의 추억어린 명소, 자주 가는 맛집 등 총 48개의 '스토리 매장'을 선정해 관광객이 쉽게 찾도록 새 모양의 심볼마크를 부착했다. 곳곳에 포토존 벤치가 있고 강남관광센터와 스토리 매장에 가이드북을 배치했다.



SM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이 소속돼 있다.

JYP엔터테인먼트,  
2pm, 원더걸스 등이 이곳 소속이다.

## 골목길 찾아가기



한류스타의 거리는 청담·압구정패션특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볼거리와 놀거리, 즐길거리가 모두 모인 공간이다.

### 한류체험관 즐기기

강남관광정보센터에는 한류를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한류체험관이 있다. 터치스크린을 통해 한류스타의 미공개 영상을 볼 수 있고 한류 드라마에 나온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다.



카라 한승연의 핸드 프린팅



한류스타의 거리 심볼 마크



지하철에서부터 팬들을 맞이하는 2PM 준호와 친성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1~6번 출구  
버스 : 143, 145, 240, 352, 440  
강남관광정보센터  
[kr.tour.gangnam.go.kr](http://kr.tour.gangnam.go.kr)  
문의 : 02-3445-0111

### 함께 들러볼만한 곳

호림아트센터 [www.horimartcenter.org](http://www.horimartcenter.org) | 한국미술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장소. 토기, 도자기, 회화, 금속 공예품 등 한국 고미술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과 유물들이 전시 중이다. 도자기와 빗살무늬 토기를 모티브로 한 외관이 인상적.

도산공원 |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 그와 부인 이혜련 여사의 묘, 동상, 기념관 등이 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도 각광받는 곳.

## 가로수 담장 따라 느끼는 역사의 숨결

### 정동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많은 이야기거리와 함께  
아픈 기억도 간직하고 있다.  
근대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정동길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가 담긴  
근대 골목이다.  
아름다운 은행길은 덤이다.



정동길은 덕수궁 정문인 대한문에서 신문로까지 이어지는 1킬로미터의 길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의 묘인 정릉이 자리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 길은 자연과 역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다. 길따라 이어지는 은행나무는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곳곳을 수놓고, 이화여고, 정동교회 등 붉은 삭 벽돌로 지어진 근대식 건축물들은 세월에 아랑곳 않고 그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다.

근대식 건물이 많이 들어서게 된 건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서대문과 서소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성벽이 보호막이 됐고, 자연스레 일찌감치 왕실과 양반 관료들의 주거 공간으로 발달했다. 특히 19세기 후반 서구열강의 공사관이 들어서며 서구식 교육기관과 종교건물이 집중됐다. 교육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여성 교육의 시초격 격인 이화여고가 있고 장덕여중, 배재학당도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건물인 정동교회(정동제일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극장인 정동극장도 만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문을 닫은 독립신문 등의 언론도 이곳에 있었다. 아관파천의 씁쓸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러시아 공사관 터도 만날 수 있다.

정동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정동길과 덕수궁



역사적인 요소를 빼놓아도 많은 매력이 있다. 걷기 좋게 만들기 위해 1999년 2차선 도로를 1차선으로 줄였다. 또 도로 형태를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차량이 속도를 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리다 보니 정동길은 평일이건 휴일이건 사람들로 북적인다. 특히 평일 점심엔 넥타이 부대들로 점령되는데, 많은 대기업과 언론사, 관공서들이 이 근처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정동길이 특히 빛을 발할 때는 날이 좋은 봄이나 가을이다. 하루가 멀게 야외공연이 이어지고, 서울시립미술관에는 연간 상시 기획전을 마련한다. 명동과 경복궁 등과 함께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르는 코스 중 하나다. 1999년 서울시 '걷고 싶은 거리' 1호로 선정됐고 2006년에는 건설교통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프란시스코 교육회관

## 골목길 찾아가기



정동제일교회



날이 좋을 때엔 정동길 곳곳에서 축제가 열린다.

### 가을에 맛보는 '정동문화축제'

매년 10월 경, 은행잎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열리는 축제. 서울시립미술관과 덕수궁 돌담길을 포함, 정동길 전체가 축제 무대로 꾸며진다. 인기 가수의 공연은 물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보물찾기, 페스티벌 이벤트 등도 열린다.



한국을 대표하는 극장인 정동극장



배재학당의 동관인 역사박물관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1, 2호선 시청역 1번 출구  
버스 : 103, 150, 401, 402, 1711  
중구문화관광 tour.junggu.seoul.kr  
문의 : 02-3396-4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http://www.museum.seoul.kr) | 서울의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박물관. 어느 다른 도시 박물관보다 다양한 내용을 자랑하며 조선시대 서울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경교장** | 백범 김구 선생이 쓴 개인 사저. 사적 465호로 신문로 건너편인 평동에 위치해 있다. 선생이 건국 운동을 주도할 때 '서대문 경교장'이라고 불리며 민족 진영 인사들의 집결지로 쓰였다. 김구 선생이 인두회의 흥탄에 의해 서거한 곳이기도 하다.

**피난민 쉼터에서  
맛 플레이스로**

## 해방촌거리

일제시대, 6.25전쟁의  
아픈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동네, 해방촌.  
피난민들의 가슴 저미는

시절의 흔적이  
여전한 이 동네에  
언제부턴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해방촌에 찾아온  
변화의 기운엔  
옛 아픔을 치유하는  
정화의 기운이 감돈다.



가파른 계단과 언덕길이  
해방촌의 특징이다.

남산 남쪽에 자리 잡은 해방촌



해방촌은 용산동 2가동의 대부분과 용산동 1가동의 일부가 포함된 지역이다. 용산고등학교의 동쪽, 남산타워의 남쪽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원래 이 곳엔 일제시대 일본군 사격장이 있었다. 해방 후 미군정이 이 일대를 접수했지만 그 통제력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고 그 틈을 실향민들이 비집고 들어왔다. 해방 후엔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 북쪽에서 월남한 이들, 한국전쟁으로 피난온 피난민들이 이 곳에 모인 것.

실향민들이 일본군 육군 관사 건물을 차지했고, 이후 미군정이 이들을 퇴거시키자 그 위쪽 사격장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 소설 '오발탄'에선 이 곳에 대해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짜들어 사는 공간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조금씩 변하고 있다. 한때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묘한 매력을 간직한

곳'으로 불린다. 맛 좋은 음식점이 곳곳에 있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아졌다. 또 가까운 곳에 있는 핫플레이스 '경리단길'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북적인다.

산동네 쪽으로 올라가면 예전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 언덕과 계단들에 빼곡하게 다가구 주택이 붙어 있고, 여전히 곳곳에서 스웨터를 만드는 가내공장을 볼 수 있다. 해방촌에선 1960년대 이후 많은 이들이 봉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한 때 전국 스웨터 물량의 30% 이상을 점유한다는 말도 있었다.

미군기지 근처의 동네답게 이국적인 분위기가 배어 있다. 거리 알림판엔 빠짐없이 영어로 적혀 있다. 다양한 피부색의 외국인들이 근처 상가의 한국인 주인과 인사하는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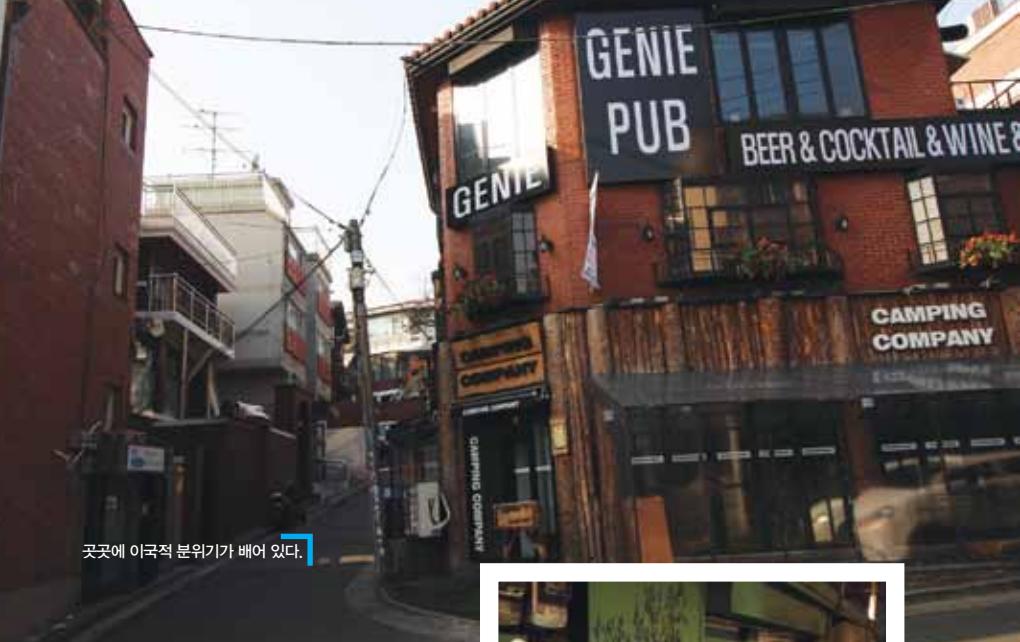
해방촌 곳곳의 안내문에는 꼭 영어가 함께 적혀 있다



저 멀리 해방촌의 랜드마크인  
해방교회가 보인다.



# 골목길 찾아가기



## 다른 길, 다른 분위기

해방촌은 4호선 숙대입구역으로도 갈 수 있다. 이 곳으로 나오면 고지대인 후암동 방면으로 나온다. 이국색이 다분한 녹사평 방면과는 달리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해방촌을 만끽할 수 있다.



곳곳에 아기자기한 벽화도 있다.



해방촌 108 하늘계단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6호선 녹사평역 2번 출구  
버스 : 143, 401, 402, 405, 406  
용산문화체육관광  
[www.yongsan.go.kr/site/ct](http://www.yongsan.go.kr/site/ct)  
문의 : 02-797-7319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서울중앙성원** | 한국 최초의 이슬람 성원. 한국에서 보기 드문 전형적인 중세 유럽풍의 건축 양식을 갖고 있다. 무슬림 어린이들의 교육시설인 '마드라사' 와 이슬람 문화연구소 등이 함께 있다.

**용산가족공원** | 주한 미군의 골프장으로 쓰이던 부지를 가꿔 만든 공원. 4.킬로미터의 산책로와 조깅 코스, 태극기공원, 잔디광장 등이 있다. 총 80종 1만 5000여 그루의 울창한 수풀을 자랑한다.



## 한국에서 맛보는 실크로드

##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



실크로드. 우리에겐 너무나 멀고 또 다른 시간대에 있는 공간 같지만 서울에서도 실크로드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의 광희동에는 몽골인과 우즈베키스탄인, 카자흐스탄인들이 한 부락을 이루며 산다. 이곳의 간판이나 언어, 사람들의 피부에서는 사막의 모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광희동 한 식당의 내부



웃가게에도 러시아어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장식장에 진열된 인형들. 중앙아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양이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는 몽골과 러시아는 물론 우즈 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이 곳에 모여 있다. 이들이 지금처럼 모여 있게 된 첫째 이유는 1990년 한–러 수교 때문이다. 당시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노태우 대통령이 수교에 합의를 한 후 많은 러시아(당시는 소련) 보부상들이 이 곳으로 몰려 들었다. 원래는 카바레와 스탠드 바가 밀집한 곳이었으나 금세 러시아인의 주거지로 변했다. 이후 러시아 상인들은 돌아갔지만 그 빈자리를 중앙아시아인들과 몽골인들이 메웠다.

중앙아시아거리에 들어서면 거리를 매운 낯선 문자 때문에 당황하기 일쑤다. 이 희한하게 생긴 문자는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키릴문자'다. 오히려 한글로 된 가게가 어색할 정도. 이곳엔 무역중개업체, 음식점, 식료품점 등 150여 개의 중앙아시아 관련 업체가 있다.

이 곳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몽골 사람들이다. 골목 입구의 은행은 주말이면 몽골인들을 위한 영업을 한다. 은행에 들어온 사람은 몽골말로 '몽골 직원은 어디 있나요'라고 묻는다. 특히 '몽골타워'라고 불리는 뉴금호타워 건물은 10 층 전체를 몽골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몽골인은 4,500여 명. 하지만 비공식 인구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될지도 모른다. 몽골 인구의 300만 중 절반 가량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살고 나머지는 유목을 하며 넓게 퍼져 산다. 그런 특징을 감안할 때 광희동엔 울란바토르 다음으로 몽골 사람이 많이 모여 산다는 흑자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



중앙아시아골목엔 한글보다 키릴문자가 많을 정도다.

### 몽골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다면

중앙아시아거리 입구에는 각 국가와의 거리를 표시해 놓은 표지판이 있다.

카자흐스탄 수도 이스탄나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러시아 바이칼호,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 등과의 거리와 방향을 한글과 영어, 키릴 문자로 적어 놓았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는 5,126킬로미터,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와는 1,996킬로미터, 바그다드와는 7,25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 겉이 얇은 패스트리에 양고기와 채소를 다져 넣어 익혔다.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꼬치 구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2,4,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 출구  
버스 : 105, 144, 152, 261, 301  
중구청 [www.jungu.go.kr](http://www.jungu.go.kr)  
문의 : 02-3396-4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청계천 판잣집 체험관 | 196~70년대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 추억의 생활용품과 장난감을 염가로 팔고 딱지치기, 뽕빵 전자오락기, 달고나 뽕기 만들기 등을 경험할 수 있다.

훈련원공원 | 을지로 5가에 위치한 공원. 이곳에는 원래 조선시대에 병사의 무술훈련과 병서, 전투대형 강습을 하던 훈련원이 있었다. 1907년 8월 맷어진 한일신협약에 의해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자연스레 훈련원도 문을 닫았다.





## 보자

북촌한옥마을	92
종로서촌마을	96
성수동수제화거리	100
명동재미로	104
강풀만화거리	108
이화벽화마을	112
예지동시계골목	116
문래동샤링골목	120
홍제동개미마을	124
창신동절벽골목	128

## 가장 한국스러운 골목

## 북촌한옥마을



북촌한옥마을은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골목이다. 외국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동네이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유명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의 얼을 느끼고 한국의 옛 모습을 알기에 이만한 동네도 없다.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전통한옥이 밀집된 서울의 대표적 전통 주거지다. 많은 사적들과 문화재, 민속자료가 있어 도심 속의 거리 박물관이라 불리는 곳이다. 북촌이라 불리는 건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이기 때문이다. 가회동과 송현동, 안국동, 삼청동, 사간동, 계동, 소격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북촌은 한양의 중심이었을 뿐 아니라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곳이었다. 북으로 갈수록 계곡이 깊어지고 남쪽은 비교적 완만하고 청계천에 이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구조였다. 그래서 자연스레 예로부터 권문세가들의 주거지로 자리 매김했다. 1906년 호적자료에 따르면 북촌 인구 1만 241명 중 양반과 관료의 비율이 43.6%에 달했을 정도다. 북촌의 위상은 개화기와 일제시대에도 이어졌다. 박영효와 김옥균, 민대식 등의 개화파가 북촌에 거주했고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이곳에 살았다.

하지만 일제시대를 거쳐 북촌의 현대화가 계속 진행됐고, 특히 1990년대에는 다세대주택 때문에 많은 수의 한옥이 사라졌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옥멸실과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북촌 경관이 변해가자 1999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전문가, 주민, 서울시가 더불어 북촌 가꾸기 정책을 수립했다.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는 한옥 등록 제를 근간으로 현대적 생활요구를 수용하며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한옥 수선을 유도, 지원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북촌의 불거리는 수도 없이 많아 제대로 보려면 하루 날을 잡아야 할 정도다. 사적 5군데, 서울시 민속자료 4개, 유형문화재 3개, 문화재자료 1개 이외에 계동길, 석정보름우물, 광혜원터 등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욕탕인 중앙탕도 있다. 한옥을 제대로 보려면 가회동 11번지와 31번지, 33번지를 찾으면 된다.

북촌한옥마을은 이름처럼 한옥이 곳곳에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다.





장인들이 직접만든 공예품



기와 위의 일록길록한 꽃이 인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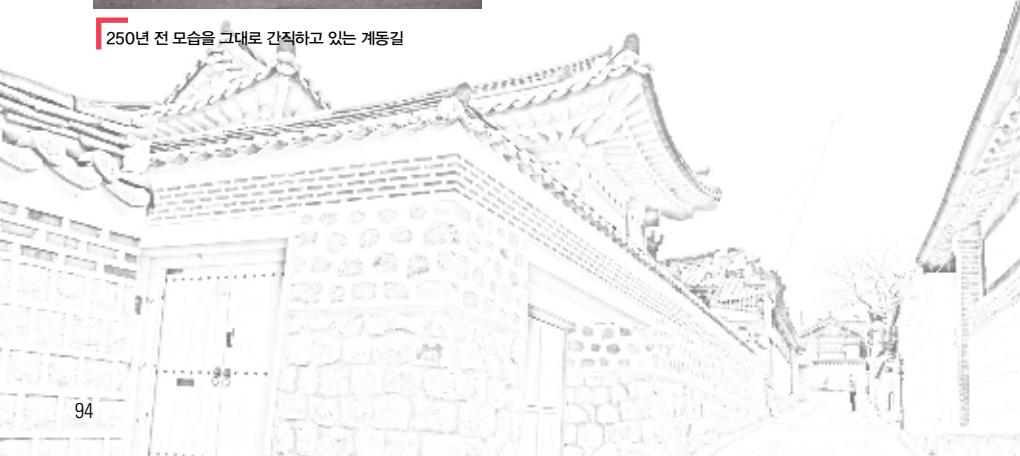


25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계동길

### 이 곳만은 꼭 들르자

**경공장 공방 :** 경공장은 궁중음식, 매듭, 자수, 대금 등의 전통 공예를 하는 장인을 뜻한다. 북촌에선 일반인에게 경공장 공방을 개방하며 실제 작업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북촌문화센터 :** 북촌을 더 자세히 들여보기 위해 만들어진 인내센터. 한옥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북촌의 역사와 가치를 홍보하는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삼청동청사

삼청동 주민센터

북촌한옥마을

국립 민속박물관

서울시립 정독도서관

경복궁

갤러리 현대

백상기념관

덕성여자 고등학교

헌법재판소

신한은행

2번출구

운현궁

1번출구

안국역 ③

종로경찰서

한국불교미술박물관

## 골목길 찾아가기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3호선 안국역 2번출구

버스 : 151, 171, 172, 272, 7025

북촌한옥마을 bukchon.seoul.go.kr

문의 : 02-2148-4160

### 함께 들러볼만한 곳

**한국불교미술박물관** [www.kartm.co.kr](http://www.kartm.co.kr) | 국내외 불교 미술품 및 전통 미술품을 전시하는 전문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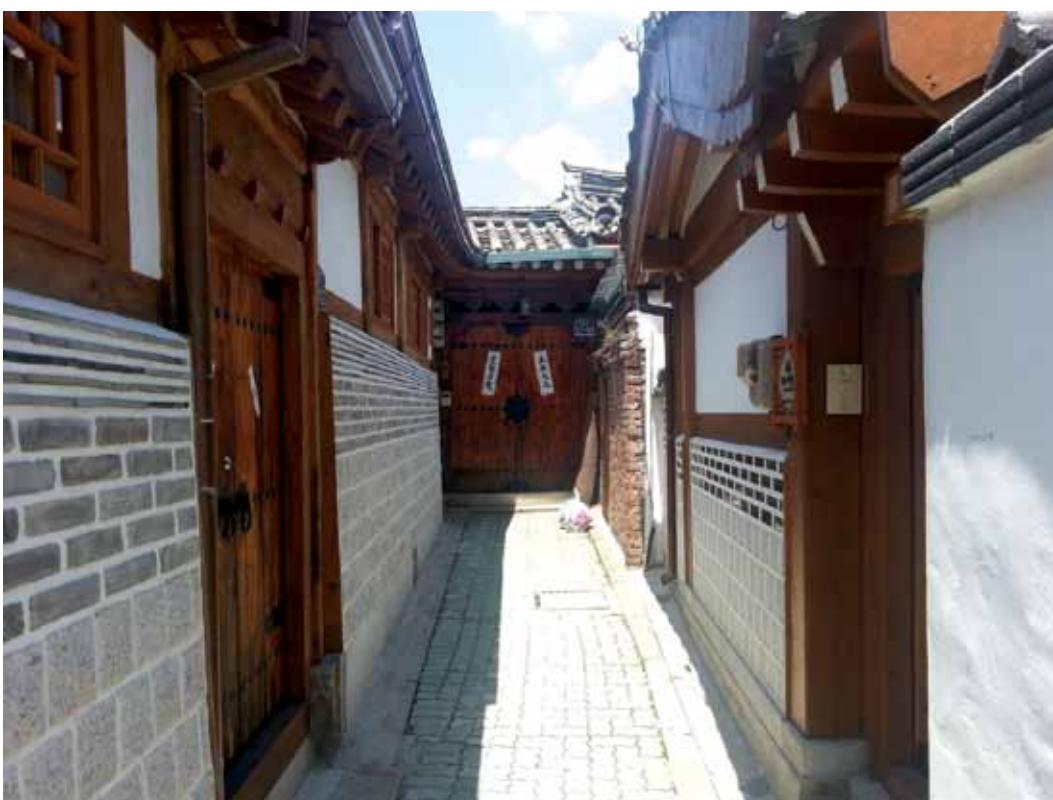
이곳에 전시된 조선시대의 불화 및 불상, 공예품은 예술성을 높게 인정받아 당시의 불교미술 수준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서울시립정독도서관** [jdlib.sen.go.kr](http://jdlib.sen.go.kr) | 북촌로 5길에 위치한 도서관. 경기고등학교 자리였으나 1976년 서울시가 인수하고 1977년 도서관으로 문을 열었다. 도서관으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분수대, 물레방아 연못 등을 갖춘 유명하다. '품행제로', '그 남자의 책 198쪽' 등 많은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했다.

궁궐 서쪽, 사람 내  
둘씬 풍기는 곳

## 종로 서촌마을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서촌은 북촌과 비슷하지만  
분위기는 다르다.  
좀 더 ‘사람이 사는 동네’  
라는 느낌이 배어 있다.  
지역적 특색으로 연출된  
분위기이지만, 덕분에  
사람 냄새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다.



서촌은 경복궁 서쪽 지역을 뜻하는 말이다. 효자동, 창성동, 통인동 등 총 9개의 법정동이 포함된다. 도성의 북쪽에 있어 북촌이라 부른 것처럼 서촌이란 이름도 마찬가지로 쓰인다. 북촌과 달리 서촌은 행인이나 관광객에게 친절하지 않다. 이정표도 몇 개 없고 택시 기사에게 “서촌으로 가주세요”라고 하면 못 알아듣기 일쑤다. 통인동, 누상동도 잘 못 알아들어 “효자동 쪽이요”라고 하면 그제야 “아~”라고 대답이 돌아온다. 서촌이란 이름이 어색하긴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이 동네는 그런 이름으로 불릴만하다. 인근 북촌과도, 명동과도 다른 분위기다. 오래된 골목과 건물이 많고 동네 주민의 표정에서도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북촌처럼 한옥집이 몰려 있진 않지만 고층 건물이 없어 아기자기한 느낌을 한 눈에 받는다. 몇 년 전부터 관광지로 부각되기 시작하며 커피숍, 옷 가게 등이 늘었지만 그래도 이 곳 사람들은 서촌을 ‘촌 동네’라고 부르는데 서슴없다.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도 최근에야 생겼을 정도다. 이런 분위기 덕에 스크린에서도 사랑받고 있다. 영화 ‘건축학개론’의 촬영지로 쓰였고 아이유의 뮤직비디오 ‘꽃갈피’, 드라마 ‘상어’의 배경이 됐다.



가게 입구에 나와 있는 의자.  
서촌에선 이렇게  
나그네를 위해  
놓여 있는 의자가  
곳곳에 있다.

조선시대만 해도 이 지역엔 역관이나 의관 등 중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특히 화가가 많이 살았는데 겸재 정선이 이곳 사람이었고 근대에 들어서 화가 이중섭도 서촌에 살았다. 바로 뒤에 인왕산이 있어 ‘인왕재색도’가 탄생할 수 있었다. 영화배우 이민정의 외할아버지 박노수 화백 또한 서촌 주민이었다. ‘비밀의 정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일에 싸여 있던 박 화백의 집은 현재 종로 구립 박노수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서촌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지역적 특색 때문이다. 청와대 근처라 고도 제한, 개발 제한에 걸려 고층빌딩이 들어서거나 개보수를 하기 힘든 것. 그런 장애가 예전엔 원성의 이유였으나 이제는 전통과 추억을 보존할 있는 원동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사연 있는 명소도 많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 된 현 책방 ‘대오서점’은 60여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효자베이커리’는 20년 넘게 청와대에 빵을 공급하며 대형 제과점들과 경쟁하고 있다. 통인시장도 유명한데, 입구에서 판매하는 엽전(개당 500원)을 이용해 시장 안 대부분 가게의 먹거리를 먹을 수 있다.

# 골목길 찾아가기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책방  
대오서점

## 서울시 추천 서촌 관광 다섯 코스

- 1코스 : 경복궁역 - 대림미술관 - 보안여관 - 경복궁아트홀
- 2코스 : 경복궁역 - 대오서점 - 통인시장 - 자수궁터
- 3코스 : 경복궁역 - 흥종문 가옥 - 배화여고생활관 - 필운대
- 4코스 : 미을버스승차장 - 서촌주거공간연구회 - 티벳박물관 - 수성동 계곡
- 5코스 : 경복궁역 - 팔레드서울 - 송석원 터 - 경복궁역



박노수 가옥 전경



청와대에 빵을 납품하는 효자베이커리



서촌 입구의 통인시장에서는 엽전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3호선 경복궁역 4번 출구  
버스 : 171, 272, 606, 706  
종로엔디있다 tour.jongno.go.kr  
문의 02-2148-1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경희궁 | 숙종과 경종이 태어난 곳. 이곳에서 숙종과 영조, 순조, 인현왕후, 인선왕후 등이 승하고 경종과 정조, 현종이 즉위했다.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과 더불어 서울 5대 궁궐로 꼽힌다.

유관순기념관 [yugwansun.cheonan.go.kr](http://yugwansun.cheonan.go.kr) | 유관순 열사를 기리기 위해 1974년 건립된 기념관으로 이화 여자고등학교 인근에 있다. 유관순의 사진과 유물이 전시돼 있으며 교정에는 동상과 함께 '유관순 열사가 빨래하던 우물터'가 있다.



한 사람만을 위한  
장인의 땀방울

## 성수동 수제화거리

사람은 두 개 뿐인 손을  
열심히 놀려야 겨우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수제화가  
더 빛나는 이유는 '한 번에  
하나'라는 집중력도 있지만,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신발이라는 데 매력이 있다.  
수제화거리는 그런  
장인정신이 뜰뜰 뭉쳐  
만들어진 '장인의 거리'다.



빨간 여성 구두도 있다.



주말마다 열리는 '슈슈마켓'

성수역 주변에 수제화 매장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의 일이다. 1960년대 서울역 염천교, 7~80년대 명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제화 매장들이 좀 더 저렴한 임대로를 갈구하며 자리하게 된 것. 당시만 해도 성수동엔 구두 대량생산을 주도하는 금강제화 본사가 있었고, 엘칸토, 에스콰이아 본사가 있는 성남과도 멀지 않았다. 특히 IMF 이후로 많은 업체와 공장이 대거 이동했다.

현재 수제화거리에는 500개가 넘는 수제화 관련 업체가 있다. 원제품 여성화를 파는 곳이 217곳, 원부자재를 유통하는 곳이 110군데에 이른다. 중간가공을 하는 곳도 102곳이라니 왜 이곳이 수제화의 메카로 불리는지 알 수 있다.



수제화거리엔 가죽공방부터 판매장까지  
구두와 관련해 없는 게 없다.

수제화거리는 성수역 3, 4번 출구를 중심으로 만 평 가량 자리하고 있다. 원제품 매장이 모인 곳이 있는가 하면 액세서리, 굽 등을 전문으로 하는 부자재거리도 있다. 이 거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성수 수제화타운(SSST)도 있다. SSST는 수제화거리 부흥의 선두 주자다. 성동 지역 제화인들로 구성된 서울성동제화협회는 '문제는 판로'라는 인식 아래 지난 2011년 공동 판매장인 SSST를 열었다. SSST는 설립 7개월 만에 매출 5억을 달성, 행정안전부 우수미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2014년 이곳에 '슈스팟(SHOESPOT) 성수'라는 전시 공간을 마련해놓고 지역 상권 부흥과 수제화 일리기에 나섰다. 슈스팟 성수에서는 한국 수제화의 역사에서부터 만드는 과정, 수제화 거리 지도까지 다양한 것들을 전시하고 있다.

# 골목길 찾아가기



## 구두의 설계도 작업지시서

작업지시서는 계량지, 제품의뢰서 등의 이름으로도 통용된다. 쪽지에 대충 적거나 선생의 입으로 전해 만들던 수제화가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또한 대량생산판매가 보편화되며 사이즈와 수량, 모델을 기록하는 표가 등장했다.



거리 곳곳에 수제화의 흔적이 있다.



구두를 다듬는 장인의 모습



구두와 관련된 벽화도 쉽게 볼 수 있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2호선 성수역 3,4번 출구  
버스 : 성동10, N62, 2016, 2224  
성동구청 [www.sd.go.kr](http://www.sd.go.kr)  
문의 : 02-2286-5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건대 양꼬치골목** | 건대입구역 부근엔 화교들이 대거 모여 양꼬치를 파는 양꼬치골목이 형성돼 있다. 가게 주인은 대부분 중국 출신이지만 손님의 대부분은 한국인. 맛도 좋을 뿐 아니라 한중 간 흘렀던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서울숲** [parks.seoul.go.kr/seoulforest](http://parks.seoul.go.kr/seoulforest) |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비견되는 서울 최고의 숲. 뚝섬을 재개발해 116헥타르의 거대한 숲을 만들었다. 이곳의 고라니와 꽃사슴은 최고 인기 스타다.



## 하니가 달려다니는 골목

### 명동 재미로



공포의 외인구단, 달려라 하니, 미생, 순정만화, 식객...

이 중 좋아하는 만화를 고르라고 하면 상대방의 연령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부모님 세대의 '마루치아라치', 언니세대의 '달려라 하니' 등 추억 담긴 캐릭터들은 동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강한 공감대를 선사한다. 추억의 만화캐릭터들이 나이 먹지 않은 채 살아있는 골목, 명동 재미로는 서울에서 가장 '순수한' 골목이다.



명동역 3번 출구 앞 만화의 거리  
'재미로' 안내판 천장에는  
드라마로도 제작된  
박소희 작가의 '궁' 캐릭터들이  
내려다보고 있다.

주요 방문 포인트는 명동역 인근부터 5군데에 설치된 만화문화정류장으로 명동역 3번 출구 앞 '상상공원', 퍼시픽호텔 앞 '만화삼거리' 공영주차장의 '사연우체국', 편의점 주차장의 '재미운동장', 남산옹벽 '만화언덕'이다.

재미로는 명동역 2번 혹은 3번출구로 나오면 바로 볼 수 있다. 출구에서 남산 방향으로 조금 걷다 보면 퍼시픽호텔을 중심으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 중 왼쪽 골목이다. 조입부터 만화가 시우의 '신의 탑' 이 행인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조금 더 들어가면 만화가 허영만과 이현세의 그림이 대결 구도로 펼쳐진다.

반기운 만화 캐릭터들은 언덕을 오를수록 더욱 많아진다. 나애리와 대결을 펼치는 하니의 모습도 있고, '야기공룡 둘리'의 둘리,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귀여운 괴물, 가오나시도 보인다. 벽면이나 전봇대, 계단이나 지붕까지 의외의 곳곳에서 만화 친구들이 반기운 인사를 건넨다. 퍼시픽호텔 앞에 위치한 만화 삼거리를 통해 남산 옹벽에 조성된 만화 언덕까지 계속된다.

작가와 팬들의 소통공간인 다목적 문화공간 재미랑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작가들의 기획전시와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볼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개방되며,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다.

이 곳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이들은 길 건너 명동의 화려함에 비해 특색 없이 멋있하고 가파르기만 했던 오르막길을 떠올린다. 서울을 찾는 관광객 중 연간 약 700만 명이 찾는다는 명동과 남산의 연결지점이지만 오랫동안 낙후된 상태로 머물러왔던 이 곳이 2013년 12월, 만화의 거리 '재미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재미로는 탄생 과정부터 매우 흥미롭다. 원로부터 신인 작가 까지 약 70명의 대한민국 대표 작가가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만화 반상회도 열렸다.

거리명인 재미로와 만화문화공간 재미랑이라는 이름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SNS를 통한 시민 공모와 명동 거리투표로 선정됐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는 재치만점 작명이 아닐 수 없다.



## 골목길 찾아가기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4호선 명동역 3번 출구  
버스 : 104, 421, 463, 507, 604  
서울애니메이션센터 www.ani.seoul.kr  
재미랑 페이스북 : www.facebook.com/zaemirang  
문의 : 02-779-6107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서울애니메이션센터 [www.ani.seoul.kr](http://www.ani.seoul.kr) | 태권브이가 수문장처럼 서 있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뿐으로 와 둘리, 뿌까 등 구석 구석 캐릭터들이 가득한 동심 천국이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국산 캐릭터를 소재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옥상 정원은 MBC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의 '한성 (이선균 분)'의 집 촬영지로 쓰였다.

### 사랑의 자물쇠 & N서울타워 전망대

[www.nseoultower.com](http://www.nseoultower.com) |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한류팬 드라마 트레블링의 필수 코스가 된 곳! 우리에겐 익숙한 N서울타워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사랑의 자물쇠를 걸며 여주인공 천송이(전지현 분)가 된 기분도 느끼고 360° 파노라마 뷰로 서울 전망과 한양도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잠시 느긋하게 도시를 관망해보는 낭만을 즐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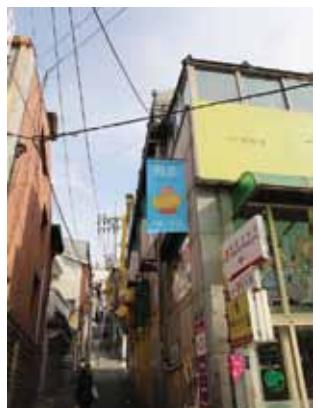


재미로의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만화문화공간 '재미랑'. 만화관련 전시와  
무료 열람시설이 갖춰져 있다.  
방학동안 아이들의 방문으로 벌디딜  
틈이 없다.



### QR코드를 찾아라!

거리 곳곳에 설치된 QR코드를 인증하면  
재미난닷컴의 모바일웹을 통해 보다  
자세한 '재미로' 투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간 중간 담벼락마저 캐릭터로 가득하다.  
골목 전체가 촬영 포인트!

만화 캐릭터를 이용한 간판도 눈에 띈다.

## 만화로 되살아난 우리 동네

# 강풀 만화거리

강풀만화거리는 한 사람의 힘으로 동네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인기 웹툰 작가이자 동네 주민인 강풀은 자신의 만화는 물론 그 안에 동네에 대한 애정을 담았다. 조용하던 동네가 이젠 강동의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강풀만화거리는 2013년 골목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강풀의 만화 배경은 실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대부분 이곳 강동구였다.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리어카가 올라가는 언덕도, '순정만화'에서 총각과 여고생이 만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모두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가들과 선사고등학교 미술부학생들은 강풀의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 넣기 시작했고, 이제는 서울에서 인기 있는 벽화 마을 중 하나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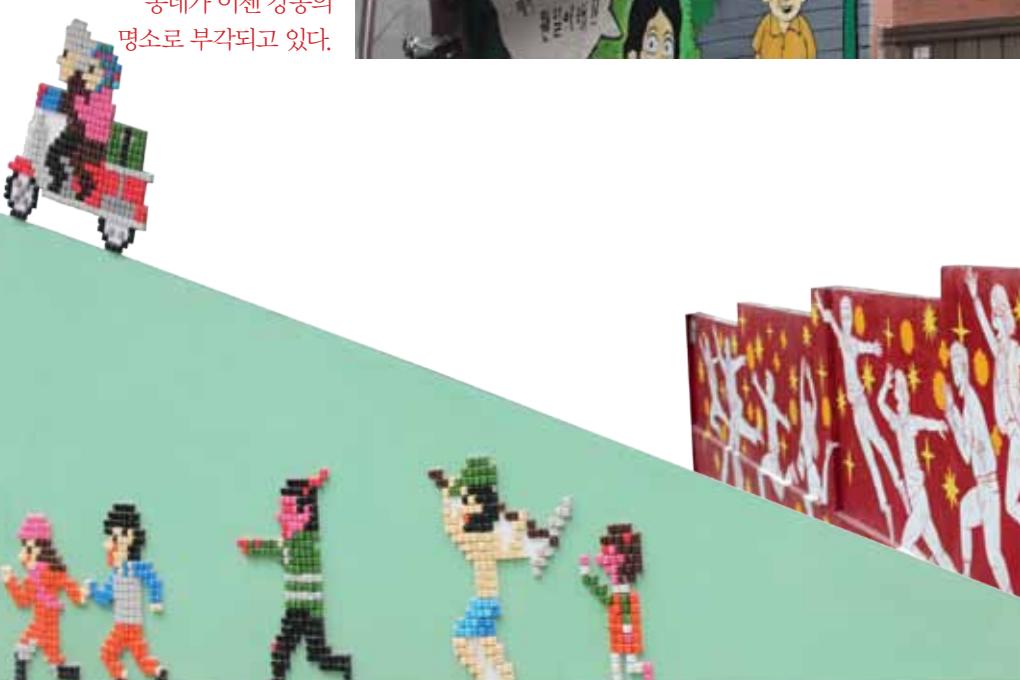
〈순정만화〉의 주인공들

원래 이 동네는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다. 독거노인도 많고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골목상권도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만화거리가 조성된 후 사람이 늘기 시작했다. 동네의 변화는 만화거리 안내를 맡고 있는 도슨트의 말로도 알 수 있다. “작은 변화들이 많이 생겼어요. 만화 때문인지 쓰레기도 눈에 띄게 줄고, 곳곳에서 담배를 피던 학생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강풀의 만화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도 만화거리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 그의 스타일을 알 수 있다. 물론 ‘아파트’나 ‘이웃사람’처럼 강렬한 작품도 있지만 강풀이 가장 중요시하는 만화 속 소재는 ‘사랑’이다. ‘바보’에서 상수와 희영이가 일하던 ‘카페작은 별’ 그림을 지나면 마지막 벽화 ‘동행’이 나온다.

이 그림에서 작가는 ‘가장 약하고 낯은 곳에 있는 생명들이 함께 어울리고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면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다.

강풀만화거리는 찾기 쉽다. 5호선 강동역 4번 출구를 나서 조금만 걸어가면 김만석 할아버지와 송이쁜 할머니가 ‘어서와 강풀 만화거리’ 라며 반긴다. 할머니를 비롯한 만화 속 여주인공들이 한강고수부지에 소풍을 즐기고 있다. 오래돼 보이는 2층 철학관에는 ‘얘가 웬일이래?’ 라며 할머니가 반갑게 웃고 있다.





사람들을 환영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 도슨트를 적극 활용하자

강동구청은 방문객들의 관람을 돋기 위해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명 이상이 함께 올 경우 만화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를 설명하는 도슨트와 함께 골목 투어를 할 수 있다.

신청 강동구청 도시디자인과 02-3425-6133



세탁소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



포토존으로 안성맞춤인 그림

강풀 작가의 메시지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5호선 강동역 4번 출구  
버스 : 130, 341, 351, 370, 3214  
강동문화포털 culture.gangdong.go.kr  
문의 : 02-2148-1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암시동유적** |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 기원전 4000 ~ 3000년 무렵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 유적이다.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를 비롯, 청동기시대의 유물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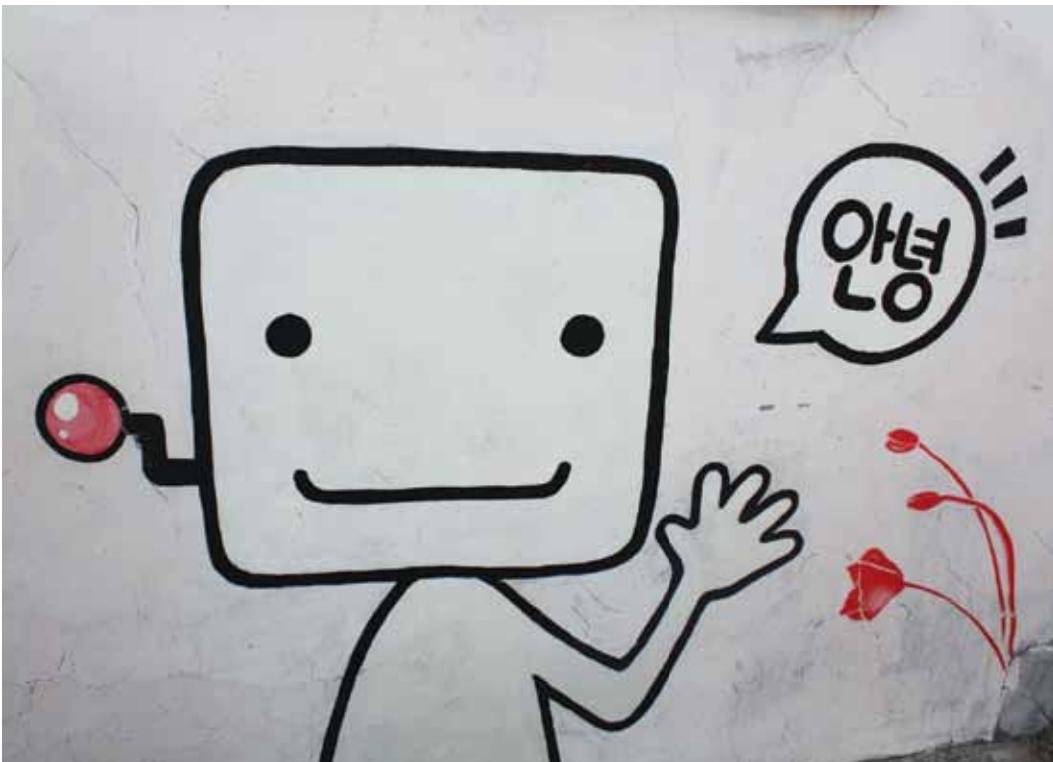
**올림픽공원** [www.olympicpark.co.kr](http://www.olympicpark.co.kr) | 송파구에 있는 공원으로 43만평의 광활한 규모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목적으로 건설됐으나, 지금은 체육, 역사, 교육 등 다양한 용도를 갖춘 종합공원으로 이용된다.



## 꿈을 품은 골목길

## • 1화벽화마을

대학로에는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수십여 곳의 공연장이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실험적인 작품이  
피고 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뒤편은  
시간이 멈춘 듯하다.  
알록달록한 벽화와  
주민들이 스며든,  
바로 이화벽화마을이다.



벽화와 가주 공간이 스며들듯  
공존하고 있다.



이화벽화마을은 혜화역과 동대문역 사이, 낙산공원 밑에 위치한 마을이다. 본래 이 곳은 1970년대 전후만 해도 제조업의 중심 가였다. 특히 동대문시장에서 판매되는 의류, 침구류, 커튼, 액세서리 등이 이 곳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2000년 초반부터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봉제 일이 예전 같지 않자 주민들이 터전을 하나 둘 떠나고 동네의 생기도 잃었다. 그러자 활기를 되찾기 위해 예술가들이 나섰다. 'Art in City 2006'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미술추진위원회에서 소외 지역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낙산프로젝트를 주관했다. 화가 한젬마 등 70여 명의 작가가 참가, 동네 곳곳에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했다. 단순히 지역의 시각적 환경만 개선한 게 아니라 동네 역사와 주민의 기억을 수집하고 정리해 만들었다. 그런 변신은 이화마을을 드라마 및 영화의 단골 촬영장소로 부각시켰다. 서울 최초의 벽화마을답게 규모나 작품이 남다르다. 토끼그림이나 천사의 날개, 꽃계단 등은 이화마을을 대표하는 벽화들이다. 낙산공원과도 바짝 붙어 있다. 공원으로 오르는 도중에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한여름에는 바람이 솔솔 불어와 좋다.



이화벽화마을은 관광지로 자리잡았지만 삶의 터전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마치 벽화가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온 느낌이다. 벽화에서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누군가의 집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주거지라는 느낌에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지나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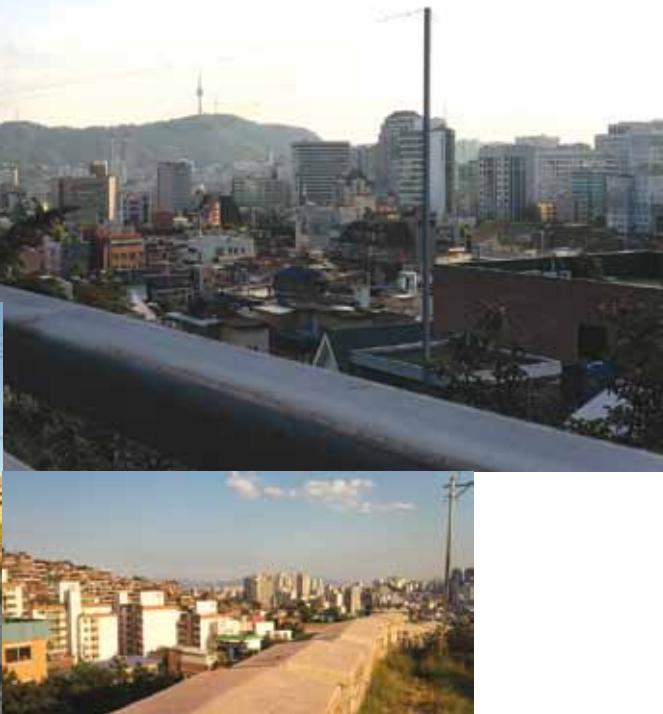


벽화마을 한양도성길  
가장 인기가 많은 '꽃계단'

### 마을의 삶을 지켜주세요.

이화마을 주민들은 벽화의 명성이 널리 알려지며 '삶의 터전을 침범 받는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관광객과 마을 주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하자.

1. 주택 내부를 찍지 말 것
2. 소란스럽지 않고 조심스런 관람을
3. 낙서 절대 금지
4.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만



다닥다닥 붙은 다세대 주택과 우뚝 솟은 빌딩이 대비된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버스 : 102, 109, 710, 2112  
종로엔 다있다 tour.jongno.go.kr  
문의 : 02-2148-1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창경궁** | 1418년 세종이 생존한 상왕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 등으로 두 차례나 소실됐고 인조 11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구됐다. 서쪽으로 창덕궁과 붙어 있고 남쪽으로 종묘와 이어진다.

**동묘** | 삼국지 속의 명장 관우를 모신 사당.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도운 명나라의 요청으로 선조 34년에 지어졌다. 실내 구상과 장식 등에서 중국풍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는 17세기 제사 시설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



값싼 전자시계부터  
명품 예물까지

## 예지동 시계골목



'오래된 것이 좋아(Oldies but goodies)'라는 말이 있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5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킨 예지동 시계골목은 이 말에 딱 들어맞는 곳이다.  
세월을 고스란히 지킨 장인들의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산  
플라스틱 시계부터 값비싼 롤렉스시계까지 시계라면 없는 게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시계골목에선 값싼 중국산 시계부터 명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예지동 시계골목은 1960년대 청  
계전변 상인들이 이 곳으로 이주  
하며 형성됐다. 초반에는 시계방  
이 많았으나 이후 귀금속 상점이  
하나 둘 늘어 지금과 같은 모습  
이 됐다. 7~80년대만 해도 훈수  
준비 장소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90년대 등장한 빠삐와  
휴대폰에 밀리며 점차 입지가  
줄어들었다. 또 재개발 대상 지역  
이 되며 명품 예물 시계 상권이  
인근 백화점과 세운스퀘어 쪽으  
로 상당수 이동했다.

예지동 시계골목은 광장시장 길  
건너, 청계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을지로4가역 3번 출구로  
나와 3분만 걸으면 원편으로 보  
인다. 폭 2미터, 길이 200미터  
골목에 시계 및 귀금속 상점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1,400여개

에 달하는 시계와 귀금속 상가가 밀집해 있고 대부분의 가게  
에서 두 제품을 동시에 취급한다.

시계골목은 참 신기한 곳이다. 몇 천 원짜리 전자시계는 물론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까지 같은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도매상인 탓에 시중보다 물건 값이 싸다. 명품 시계는  
20% 이상, 20만 원대 중저가 시계는 3~40%까지 싸다. 제품  
구입 증명서만 있으면 AS도 수시로 받을 수 있다. 시계골목은  
영화에도 종종 등장한다. 2013년 영화 <감시자들>의 배경으로  
나왔다. 킬러 제임스(정우성 분)가 황 반장(설경구 분)과 하 형사  
(한효주 분)의 감시를 피해 추격전을 벌이는 장면이다.

예전만큼 변성하진 않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시계 구입,  
수리를 위해 이 곳을 찾는다. 특히 시계 수리에 있어선 다른  
어느 곳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곳곳에 수십 년의  
노하우를 가진 장인들이 있고 시계 부품 또한 없는 게 없다.

'모든 시계는 예지동에서 고칠 수 있다'는 옛말이 달리 나온  
게 아니다.



시계골목 입구



평일엔 사람이 적지만 여전히 주말엔  
사람들로 북적인다.

# 골목길 찾아가기



골목 양쪽으로 유리로 된 판매대가 죽 늘어서 있다.



## 시계골목의 형제, 세운스퀘어

시계골목의 북쪽 길 건너에 있는 매장. 이 곳 대부분의 가게들이 시계골목 출신이다. 예지동의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시계골목 사람들도 세운스퀘어로 이주하게 된다.

시계골목의 정인들은 “이 곳에서 못 고치는 시계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시계도 없는 게 없다.



매대를 가득 메운 시계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2,5호선 을지로4가역 3번 출구  
버스 : 100, 104, 152, 202, 261  
종로엔 다 있다 tour.jongno.go.kr  
문의 : 02-2148-1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광장시장** [www.jkm.or.kr](http://www.jkm.or.kr) | 1904년 세워진 국내 최초의 상설시장. 100년 넘도록 한복 원단, 커튼, 침구류의 주요 거래처였으나 최근에는 마약김밥, 빈대떡, 회 등 특색 있는 먹거리로 더 유명해졌다.

**종묘** [jm.cha.go.kr](http://jm.cha.go.kr) | 조선시대 역대 임금과 왕비 및 추존(追尊)된 왕과 왕비의 신주(神主)를 모신 왕가의 사당.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 석굴암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회색 골목에 편  
예술의 꽃**

**문래동  
샤링골목**



금속 절단기의 철컹대는 소리와 코를 찌르는 윤활유 냄새,  
보도블록 사이사이 쇳물의 흔적이 50년 역사를 말해주는  
문래동 샤링골목. IMF 한파 속에 도심 속 외로운 섬처럼  
버려졌던 이 곳에 언젠가부터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따뜻한 심장을 갖고 싶었던 오즈의 마법사 양철 나무꾼이  
나타날 것만 같은 도시우화의 판타지가 펼쳐진다.



골목 곳곳에 벽화와 조형물이 박혀 있다.

문래동 예술창작촌 맵.  
네트와 자전거 체인으로 제작되었다.

# 골목길 찾아가기



신기한 모양의 보호마스크 조형물

## 문래동 샤링골목투어, 이것만은 알고 가자

1. 많은 공장들이 일하는 곳이니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사진촬영은 허락 후에 해주세요.
2.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다치지 않게 조심!
3. 작업실과 사무실은 사적인 공간이니 예의를 지켜 접근해주세요.
4. 안내가이드에 소개된 작품 외에도 구석 구석 많은 작품들이 숨어 있으니 꼼꼼히 찾아보세요.



샤링골목의 조형물은 길이건 옥상이건 가리지 않는다.

차기운 금속 자재와 공연 포스터의 조화로운 부조화

철공소 틈으로 젊은이들의 구미에 맞는 매장들이 있다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2호선 문래역 7번 출구  
버스 : 6211, 6516, 6625, 6650

영등포구 문화관광안내사이트  
[tour.ydp.go.kr](http://tour.ydp.go.kr)

올래?문래!투어정보  
[tour.ydp.go.kr/Joy/](http://tour.ydp.go.kr/Joy/)

문의 :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02-2670-3131

## 함께 들러볼만한 곳

**선유도 공원** | 국내 최초로 조성된 환경재생생태 공원이다 물(水)의 공원. 아치형 보행자다리인 선유교에서 조망하는 한강의 전경이 일품이다. 밤이면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인해 한강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출사코스로 유명하다.

**여의도 생강생태공원** | 여의도의 생강을 환경친화 구역으로 바꾸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공원 조성 이후 동식물 분포가 다양해졌고 체험학습장으로 유명하다. 생태보호를 위해 매점이나 가로등도 설치하지 않았다.



## 산동네에 녹아든 예술가의 헌신

홍제동

## 개미마을



가난한 산동네에 예술가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은  
그저 예술뿐이다.  
하지만 홍제동 산동네의 한 마을에 그들이  
남기고 간 선물은 마을 자체의 삶을 바꿔 버렸다.  
개미마을은 이제 '찾아가기 힘든 낙후된 동네' 가  
아니라 '애써 찾아가고픈 어여쁜 동네' 다.



길의 시작을 알리는 벽화

벽화가 원래 있던 것 마냥 녹아 있다.

아기자기한 화단과 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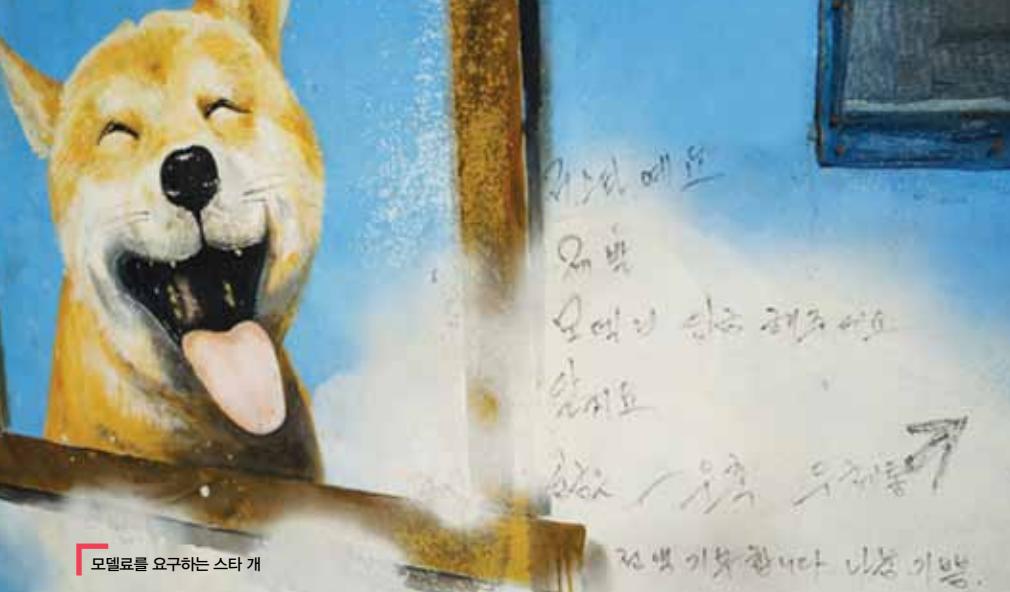
개미마을은 개미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모여 형성된 이 마을은 당초 '인디언촌'이라고 불렸다. 천막집들이 마치 인디언들의 그것과 같아서다. 또 여전히 가난한 동네다. 대부분이 일용직 종사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다. 독거노인도 부지기수다. 연말 불우이웃돕기 기사에 단골로 출연하는 동네다.

하지만 미대생들이 대거 다녀간 후 동네에 활기가 기득찼다. 마을의 벽화들은 2009년 금호건설과 서대문구가 손을 잡고 추진한 '빛 그린 어울림 마을' 프로젝트의 결과다. 성균관대, 건국대, 주계예대, 상명대, 한성대 미술학과 학생 128명의 지원봉사로 총 51개의 벽화가 개미마을에 그려졌다.

개미마을에 가면 마치 영화 세트장에 서 있는 기분이 든다. 1970년대 서울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 곳은 현재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 가운데 하나다. 이 마을만의 특별한 점은 바로 벽화. 일록달록한 물감 옷을 입은 70년대 풍경은 무언가 이질적인 분위기를 내뿜는다.

벽화 내용은 다양하다. 모델비 좀 달라는 멋진 스타 개도 만날 수 있고, 곳곳에 해바라기 꽃 그림이 만발해 있다. 교통이 나쁘지 않고 인왕산도 가까워 데이트나 사진 찍기에 참 좋다. 야트막한 마당에서 별을 쬐는 할머니도 담 위를 돌아다니는 고양이도 정겹기만 하다. 깨알 같은 재미를 찾는 것이 이 마을의 색다른 재미다.

# 골목길 찾아가기



모델로 요구하는 스타 개



개단 곳곳에도 문구가 있다.

버스 정류장에도 작품이 녹아 있다.

## 함께 보는 영화 '7번방의 선물'

개미마을은 1,200만 관객이 관람한 인기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배경이다. 특히 그중 관객들의 가슴을 가장 저미게 만든 장소가 바로 구멍 가게 옆의 버스 정류장이다.

바기지 머리의 용구(류승룡 분)가 내복 차림의 딸 예승이(길소원 분)와 인사를 나누던 곳도, 또 예승이가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기다리던 곳도 모두 개미마을의 정류장이다.



개미마을이 배경으로  
나온 영화 '7번방의 선물'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3호선 홍제역 1, 2번 출구

버스 : 서대문 07

서대문구청 sdm.go.kr

문의 : 02-330-1300

## 함께 들러볼만한 곳

**홍지문** | 조선 숙종 때 서울 성곽을 방위하기 위해 만든 문. 1921년까지 텅춘대성문으로 역할을 했으나 흥수로 붕괴됐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던 1977년 복원됐다.

**인왕산** | 종로구와 서대문구의 경계에 위치한 산. 서울의 진산(鎮山) 중 하나로 호령이가 살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조선이 건국되고 도성을 세울 때, 북악산을 주산, 남산을 안산, 낙산을 좌청룡, 인왕산을 우백호로 삼았다.



**절벽 밑 펼쳐진  
근현대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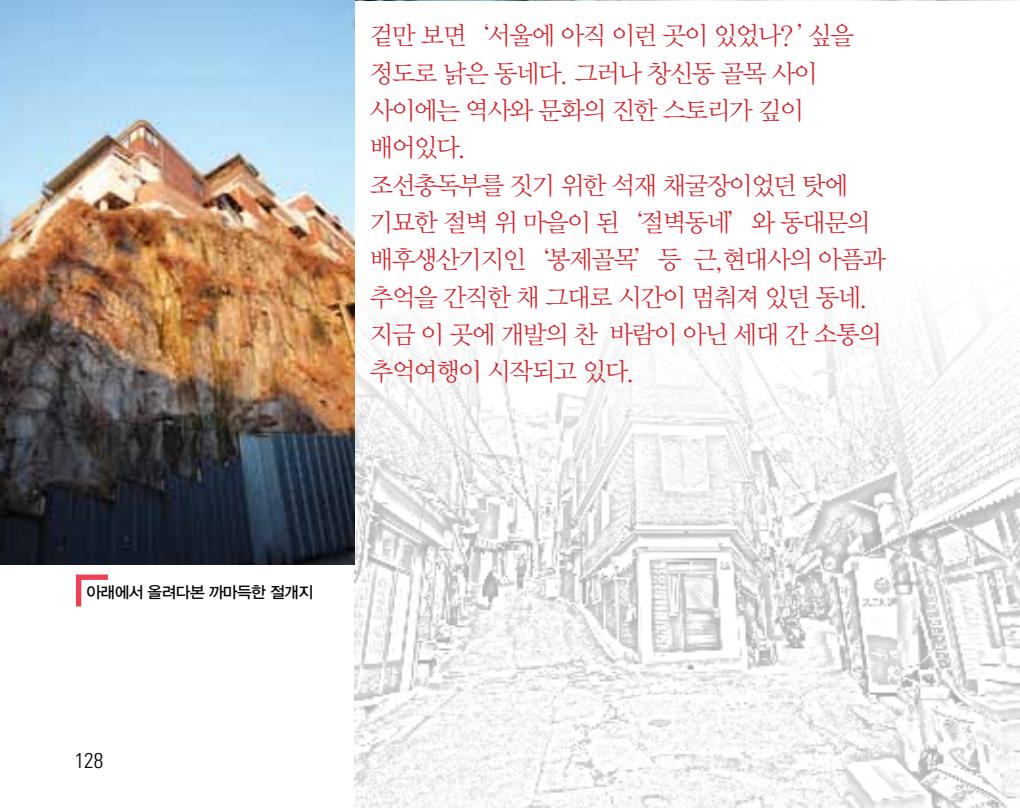
**창신동  
절벽골목**



겉만 보면 ‘서울에 아직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낡은 동네다. 그러나 창신동 골목 사이 사이에는 역사와 문화의 진한 스토리가 깊이 배어있다.

조선총독부를 짓기 위한 석재 채굴장이었던 뒷에 기묘한 절벽 위 마을이 된 ‘절벽동네’ 와 동대문의 배후생산기지인 ‘봉제골목’ 등 근, 현대사의 아픔과 추억을 간직한 채 그대로 시간이 멈춰져 있던 동네. 지금 이 곳에 개발의 찬 바람이 아닌 세대 간 소통의 추억여행이 시작되고 있다.

아래에서 올려다본 까마득한 절개지



창신동은 원래 서민의 동네가 아니었다. 조선시대 마을 전체에 복숭아나무와 앙두나무를 심어 ‘붉은 열매를 맺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다’는 뜻의 ‘홍수골’ 또는 ‘홍수동(紅樹洞)’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만큼 경관이 수려하고 도성과 가까워 양반들의 별장이 많았던 동네다.

창신동이 서민의 동네가 된 것은 일제시대부터다. 현재 절개지라고 부르는 절벽 인근에서 돌을 캐어 경성역, 조선총독부 등의 축조에 사용했다. 채석작업으로 인해 경관이 망가진 채 기기묘묘한 주택들이 세워지고 6.25전쟁 이후 서민들이 들어와 터를 잡았다.

절개지와 함께 창신동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봉제골목이다.

1970년대 평화시장 땅값이 상승하면서 봉제공장들은 창신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당시 800여 개의 업체, 1만 5천 명의 봉제사가 하루 14시간씩 일했고 당시 월급은 9천원이었다. 지난날 전태일 열사와 함께 고사리순으로 하루 14시간씩 미싱을 돌리며 시골 가족을 부양했던 평화시장의 소녀들은 이제 창신동 봉제골목의 여주인이 됐다.

정상에서 바라본 동대문 일대의 전망이 남산까지 시원하게 펼쳐진다.



이런 창신동이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봉제박물관 등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 사회적 기업 러닝투련이 도시의 산책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 해설사 및 음성 안내기의 안내를 통해 봉제골목 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매운 족발로 유명한 창신시장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기하며 연변, 인도,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음식점도 꼭 들러야 할 곳이다.

# 골목길 찾아가기



좁은 골목과 가파른 계단은 창신동을 대표하는 풍경이다.

## 다르게 즐기는 절벽의 묘미

창신동 절벽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의 경관은 전혀 다르다. 일반적인 창신동 루트인 동대문역 방향에서는 창신상용아파트가 서 있는 절벽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지만, 절벽 위쪽에서는 저 멀리 남산까지 내다보인다. 6호선 창신역으로 나오면 절벽 밑의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창신동에는 사람만큼 오토바이가 많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토바이는 원단과 웃김을 끊임없이 실어 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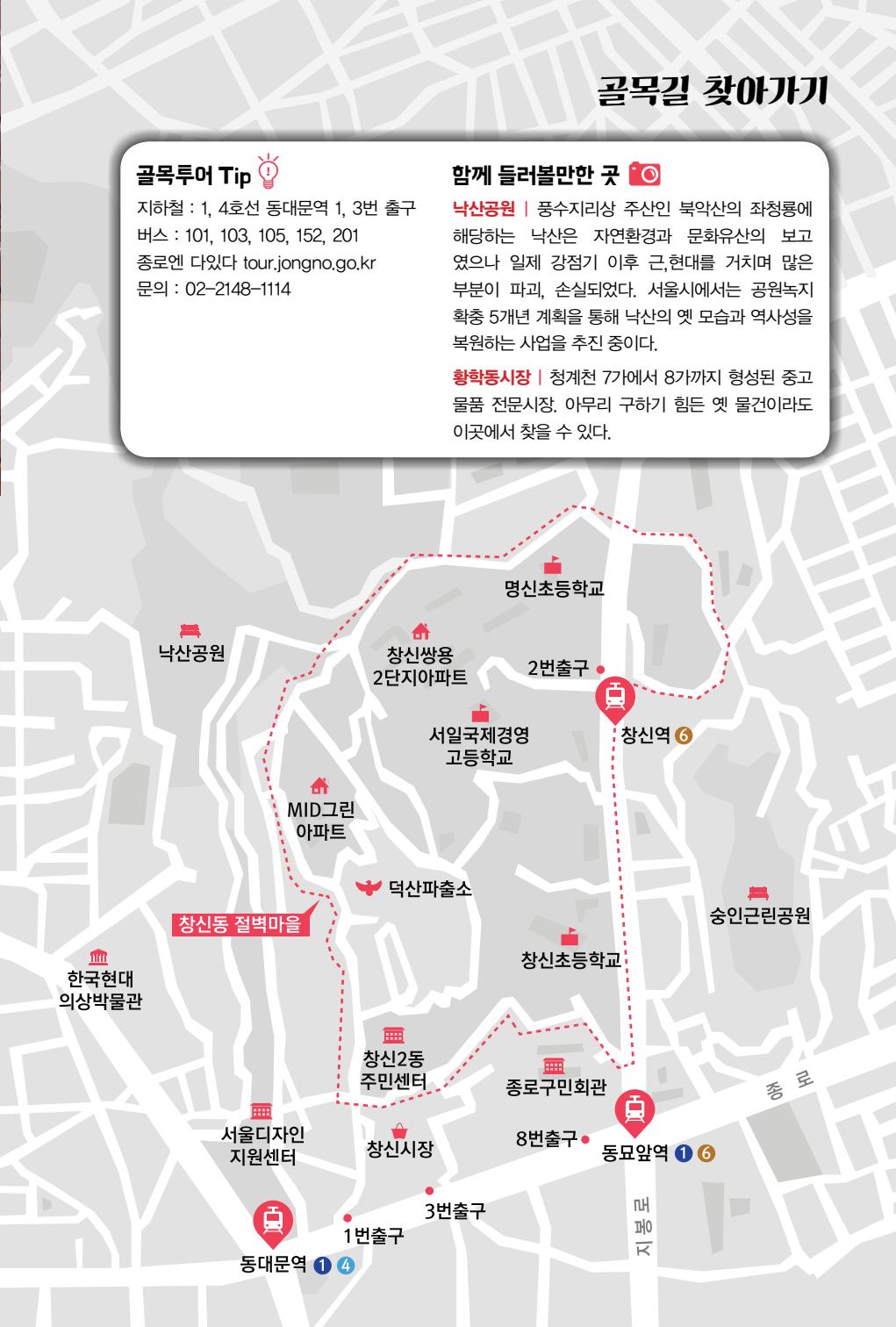
## 골목투어 Tip

지하철 : 1, 4호선 동대문역 1, 3번 출구  
버스 : 101, 103, 105, 152, 201  
종로엔 다있다 tour.jongno.go.kr  
문의 : 02-2148-1114

## 함께 들러볼만한 곳

**낙산공원** | 풍수지리상 주산인 북악산의 죄청룡에 해당하는 낙산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고였으나 일제 강점기 이후 근현대를 거치며 많은 부분이 파괴, 손실되었다. 서울시에서는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을 통해 낙산의 옛 모습과 역사를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황학동시장** | 청계천 7가에서 8가까지 형성된 종고 물품 전문시장. 아무리 구하기 힘든 옛 물건이라도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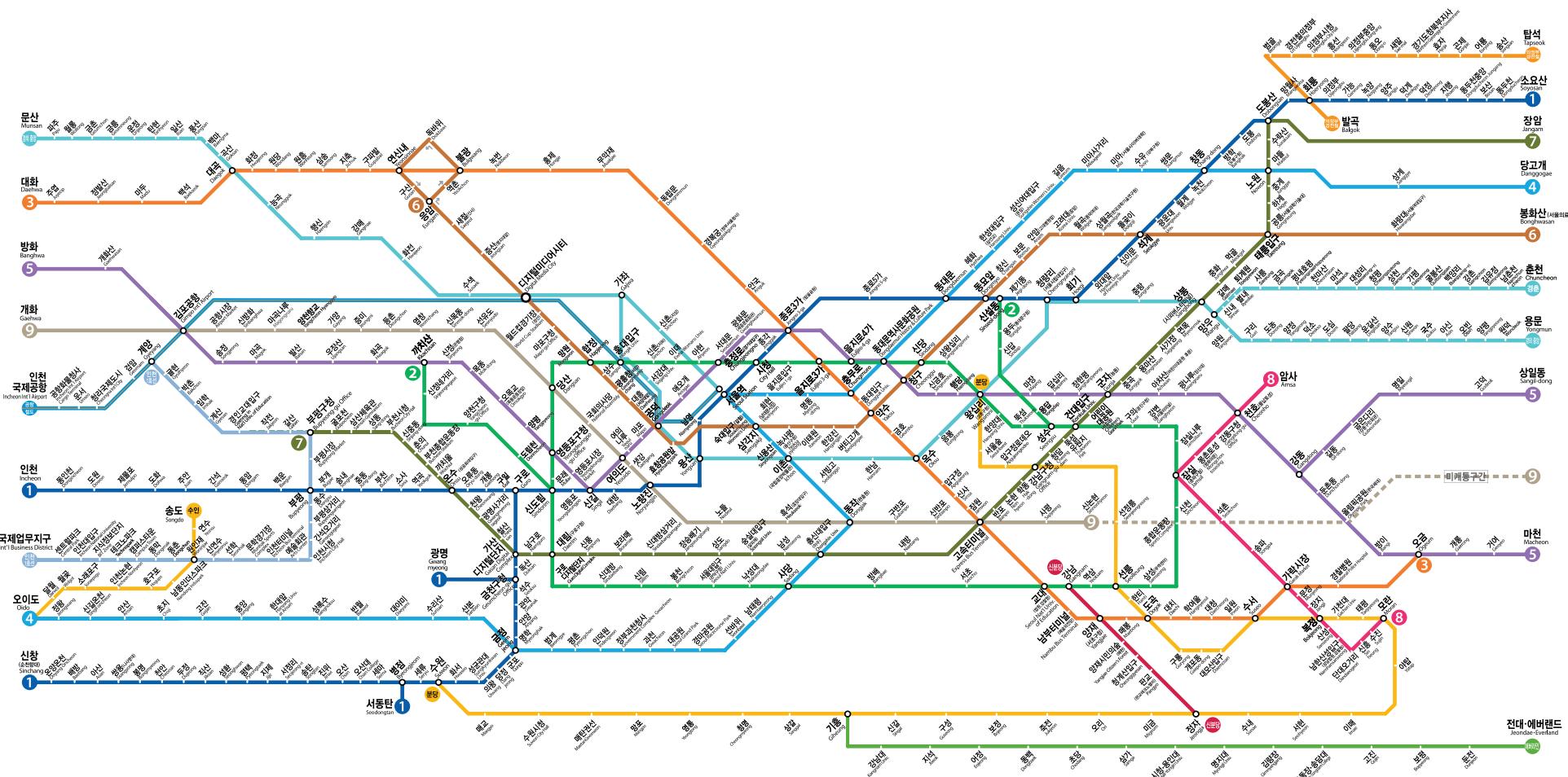


# memo



# 광역전철 노선도

Metropolitan Railway System  
廣域電鐵路線圖



## 먹자

- ① 남대문 칼국수골목
- ② 종로3가 보쌈골목
- ③ 동대문 생선구이골목
- ④ 삼청동 팔판길
- ⑤ 청진동 해장국골목
- ⑥ 회기역 파전골목
- ⑦ 서래마을 카페거리
- ⑧ 건대 양꼬치골목
- ⑨ 삼각지 대구탕골목
- ⑩ 도봉산 두부골목

## 놀자

- ⑪ 신촌 연세로
- ⑫ 흥대 땅평거리
- ⑬ 종로 인사동거리
- ⑭ 이태원 우사단길
- ⑮ 종로 부암동길
- ⑯ 신사동 가로수·세로수길
- ⑰ 청담 한류스타의 거리
- ⑱ 정동길
- ⑲ 해방촌거리
- ⑳ 광희동 중앙아시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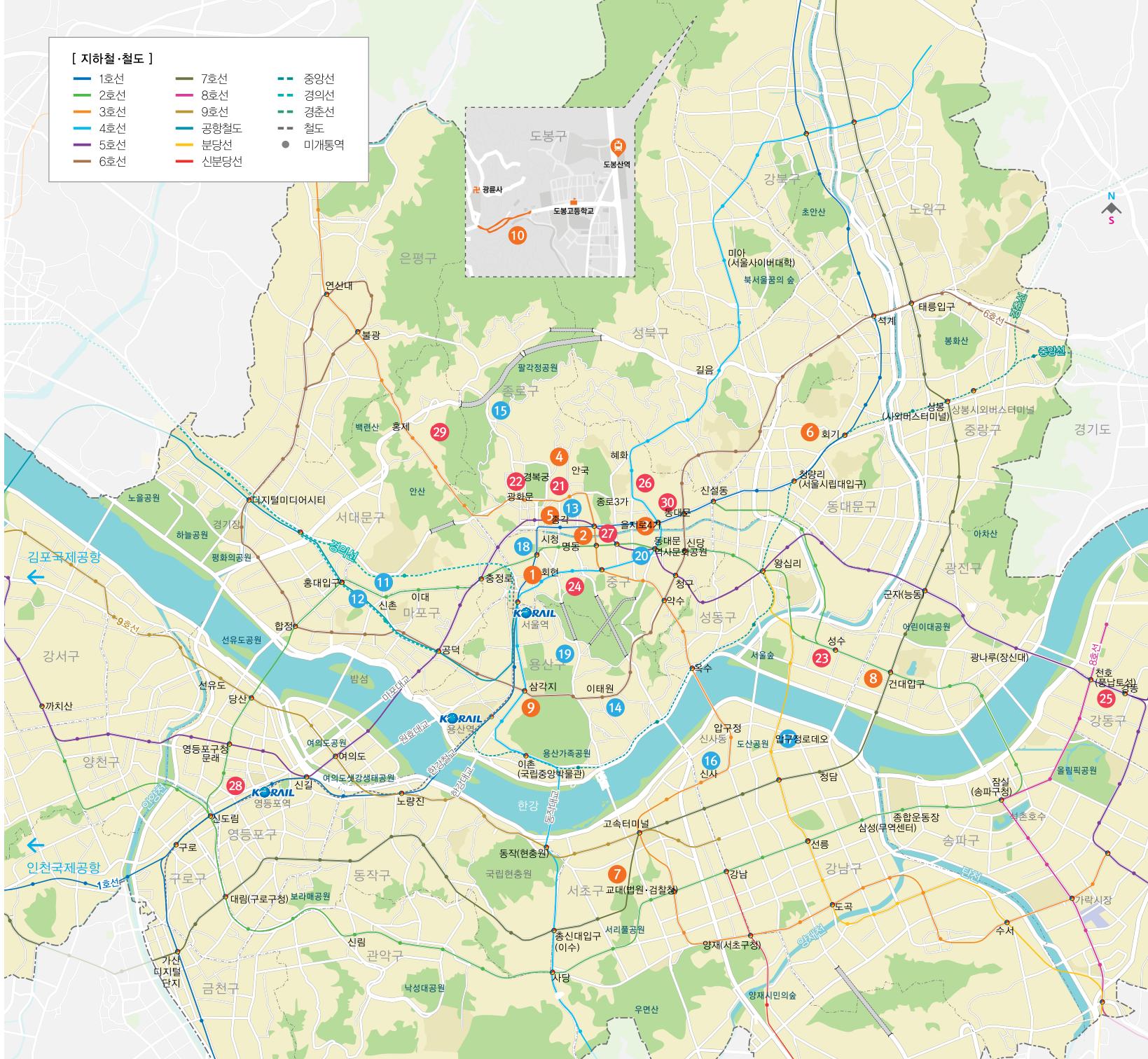
## 보자

- ㉑ 북촌한옥마을
- ㉒ 종로 손촌마을
- ㉓ 성수동 수제화거리
- ㉔ 명동 재미로
- ㉕ 강풀 만화거리
- ㉖ 이화벽화마을
- ㉗ 예지동 시계골목
- ㉘ 문래동 사링골목
- ㉙ 홍제동 개미마을
- ㉚ 청신동 절벽골목

[ 지하철·철도 ]

- |     |      |
|-----|------|
| 1호선 | 7호선  |
| 2호선 | 8호선  |
| 3호선 | 9호선  |
| 4호선 | 공항철도 |
| 5호선 | 경의선  |
| 6호선 | 경춘선  |

- |      |        |
|------|--------|
| ● 철도 | ● 미개통역 |
|------|--------|



낯설고도, 그리운



## 서울시 관광채널 안내

**서울시 공식관광정보사이트 Visit Seoul**

[www.visitseoul.net](http://www.visitseoul.net)

**서울스토리**

[www.seoulstory.kr](http://www.seoulstory.kr)

**북촌한옥마을**

<http://bukchon.seoul.go.kr>

**남산골 한옥마을**

<http://hanokmaeul.seoul.go.kr>

**서울 한양도성**

<http://seoulcitywall.seoul.go.kr>

**서울 광화문**

<http://plaza.sisul.or.kr>

**서울 청계천**

[www.cheonggyecheon.or.kr](http://www.cheonggyecheon.or.kr)

**동대문 DDP**

[www.ddp.or.kr](http://www.ddp.or.kr)

**서울의 공원**

<http://parks.seoul.go.kr>

**서울시립미술관**

<http://sema.seoul.go.kr>

**서울역사박물관**

[www.museum.seoul.kr](http://www.museum.seoul.kr)

